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 행복한교육

vol.455 2020 JUNE

### 30 교육포커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학교교육, 해외에서는?

### 36 이슈1

다시 활기 찾은 학교 "어서와~ 보고 싶었어"

### 40 정책을 말하다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 멈출 수 없는 교육! 철저한 방역, 안전한 학교로 실현합니다.

### 코로나로 힘든 일상,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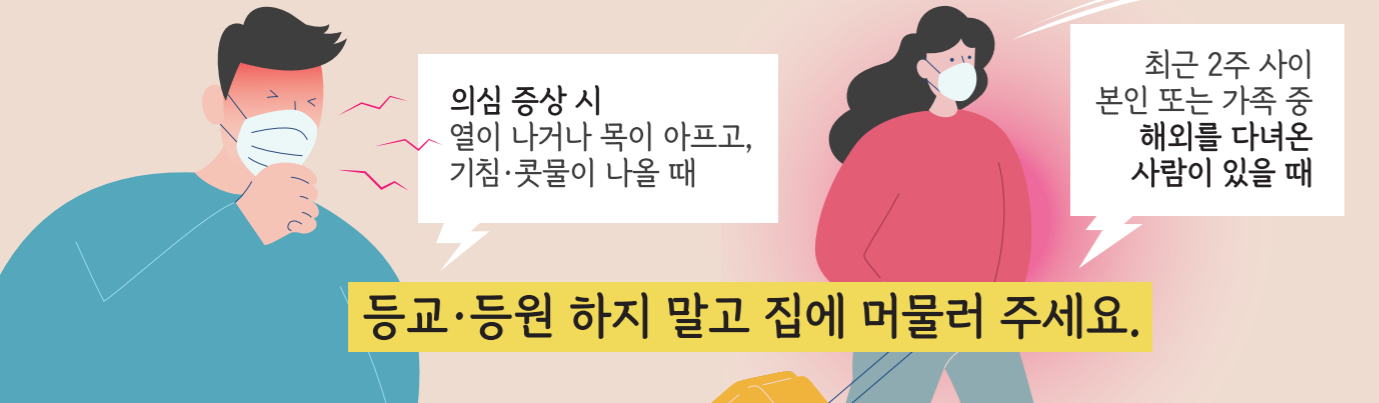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 즐거로운 교실생활

수업 가기 전, 집에서 점검해요!



의심 증상 시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고,  
기침·콧물이 나올 때

최근 2주 사이  
본인 또는 가족 중  
해외를 다녀온  
사람이 있을 때

등교·등원 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 교실에서는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마스크는  
항상 쓰도록 해요

자주 손을 씻고,  
수시로 손소독제를 사용해요

학생 간 최대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책상을 배치해요. (모둠좌석 배치 금지)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 확보  
최소 1m 이상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고,  
기침·콧물이 나오면  
바로 선생님께 말해요



# Contents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행복한 교육**  
vol.455 2020 JUNE

## 19

특별기획

### 포스트 코로나시대,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 교육

팬데믹의 경험은 수업의 질에 대한 이슈를 떠나 면대면 수업의 전면적 대체제로서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모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에게 남겼다. 현 면대면 수업에 무게 중심이 기울어져 있는 학교체제의 중심을 상당 부분 온라인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에듀테크 산업과 디지털 뉴딜정책을 소개하고,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우리 교육의 균형점을 맞춰나갈지 알아본다. 특히 미래 교육 실험실로 손꼽히는 거꾸로캠퍼스에서 배울 점은 없는지 살펴본다.



## 36

이슈

### 다시 활기 찾은 학교 “어서 와~ 보고 싶었어”

코로나19 사태로 등교가 4차례 연기된 끝에 지난 5월 20일 드디어 고3 학생을 시작으로, 5월 27일 1단계(고2, 중3, 초1~2, 유치원) 등교, 6월 3일 2단계(고1, 중2, 초3~4) 등교, 6월 8일 3단계(중1, 초5~6) 등교가 이뤄졌다. 교육부는 그동안 코로나 19의 종식과 백신 개발 등 일정을 예상할 수 없는 현실에서 등교 수업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보다는 생활 속 거리두기 내에서 학습과 방역이 조화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본격적인 등교수업이 이뤄지면서 학교는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학교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 Contents



04



10



27



36



45



51

### Cover story



코로나19로 4차례 등교 개혁이 연기되면서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 학부모도 '학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서울흥인초등학교(교장 김경미)도 5월 27일 2학년을 시작으로 등교수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애들아, 반갑다"

### 특별기획

#### 19 포스트 코로나시대,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 교육

대한민국 에듀테크 산업과 디지털 뉴딜정책 언택트 시대, 그리고 우리 교육의 균형점 미래 교육 실험실, 거꾸로캠퍼스에서 배운다

### 정책

#### 35 더 넓고 깊은 정책

5월 20일 고3부터 순차 등교수업 개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고졸인재 일자리 콘서트」 비대면 개최  
서울시교육청\_교권보호 정책

- 04 찰칵**  
슬기로운 학교생활
- 06 꿈이 영그는 현장**  
Z세대를 위한 '디지털 통일교육'
- 10 삶과 교육**  
신동필 한영고등학교 교사  
1등보다 꼴찌에게 더 마음 쓰던 '맹자선생님'
- 14 교실혁명**  
배움과 소통이 있는 거꾸로교실
- 30 교육포커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학교교육, 해외에서는?
- 36 이슈**  
5월 20일 고3부터 순차 등교수업 개시  
다시 활기 찾은 학교 "어서 와~ 보고 싶었어"
- 40 정책을 말하다**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 45 이슈2**  
「고졸인재 일자리 콘서트」 비대면 개최

- 48 교육자치시대**  
서울시교육청\_교권보호 정책
- 51 이달의 교육뉴스**  
VR로 과학 실험하고  
시로 '수포자' 막는다 외
- 54 통계로 읽는 교육**  
청소년 여가활동 1위,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검색'
- 56 교육 소확행**  
집에서 병아리를 부화한 삼남매
- 56 이야기 인문학**  
포스트 코로나시대,  
공동체 의식과 개인주의

- 60 교사상담실**  
오랜만에 등교 개혁,  
아이들 지도 어떡하죠?
- 62 명예기자 리포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교생실습은  
진행 중 외

**발행일** 2020년 6월 15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신문규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최성부  
서기관 김관중 주무관 박형민  
**편집장** 이순이  
**기자** 양지선 (객원)김혜진  
**사진** 김경수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웹진** www.happyedu.moe.go.kr  
**제보** eduzine21@gmail.com  
**전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반가운 얼굴들 덕분에 조용했던 교실이 오랜만에 활자지결했을 것 같네요. 각 학교에서는 전체 소독과 책상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주제로 <행복한 교육> 독자 여러분이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7월의 주제는 '한여름의 구슬땀'입니다.  
eduzine21@gmail.com으로 많은 분들의 응모 바랍니다.



☉ 문승욱 부산초등학교 교무행정사

전교생 38명 정도로 작은 시골학교의 등교 사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로 무장을 하고 거리두기를 하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선생님과의 시간이 마냥 즐거운 아이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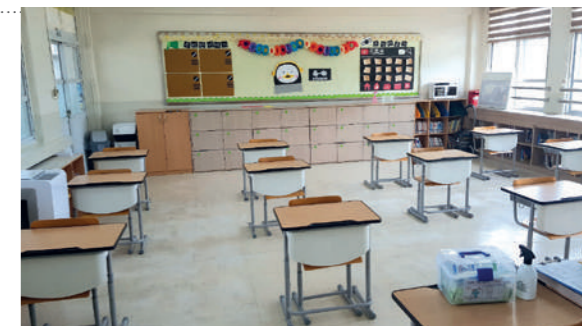


☉ 이명주 문태고등학교 교사

지난 5월 20일 수요일, 드디어 고3 수험생들이 등교를 하였습니다. 점심시간, 행복한 마음으로 급식을 기다리는 사랑스러운 학생들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1m 간격을 유지하면서 #덕분에 챌린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해서 수업하고, 이렇게 맛있는 급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건 모든 분들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 이어름 고덕초등학교 교사

초등학생도 6월 모의고사를 보냐고요? 6월 8일 등교 개학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책상을 맞추었습니다. 책상은 멀리 있어도 오랜만에 볼 우리 반 친구들의 우정은 가깝길 바랍니다. 보건 선생님께서는 방역용품 한 꾸러미를 챙겨주셨습니다. 물티슈와 마스크, 위생장갑까지! 생활방역을 실시하고자 수시로 소독약을 분무기로 교실 문이며 책상 등 여기저기에 뿌린답니다.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우수사례

# Z세대를 위한 '디지털 통일교육'

교육환경에 발맞춰 통일교육도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서울상신초등학교(교장 유미종) 김하성 교사는 디지털교과서와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해 눈길을 끌었다. 미래 세대에게 맞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디지털과 접목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들여다본다.

글 양지선 기자



2

김하성 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상신초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디지털교과서를 기반으로 학습 커뮤니티인 위두랑과 연계해 학생 간 의견과 자료를 공유하고, 유튜브·클래스카드·디지털박물관 등을 활용하여 모둠토의, 토론, 조사 및 발표학습 등이 이뤄졌다. 상신초는 전체 45대의 태블릿PC를 구비하고, 교내 특별실 두 군데에 와이파이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학생 1인당 1대씩 태블릿PC를 통해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학생들이 디지털 활용 수업을 처음 접한 만큼 사전에 디지털교과서 및 위두랑 활용 방법과 저작권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이 이뤄졌다.

지난 4년 동안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연구해온 김 교사는 놀이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란 것을 깨달았다. 디지털 활용 수업을 고안한 것 역시 학생들이 일종의 놀이처럼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였다. “지난 2018년부터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이를 연계해 통일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통일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인데, 같은 내용이라도 새로운 도구와 콘텐츠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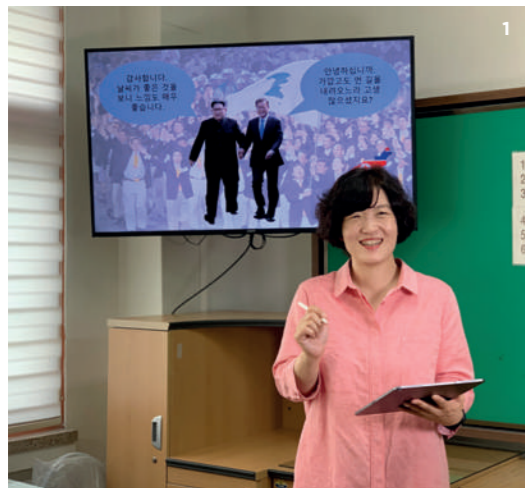
### VR·학습 어플·실감형 자료 등

#### 체험형 콘텐츠로 흥미 유발

디지털 활용 통일교육은 ①통일 필요성 인식하기 ②민족공동체 의식 기르기 ③북한 이해 돕기 ④남북 협력 태도 기르기로 크게 영역을 나누고, 각 주제별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모든 프로그램은 우선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 후 학습주제에 따라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며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통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도록 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1\_ 디지털 활용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한 서울상신초 김하성 교사



1

2\_ 토론 수업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위두랑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게 한 후 진행됐다. (2019 상신초 학생들의 통일교육 사진)

3\_4\_ 학생들은 1인 1태블릿PC를 사용해 디지털교과서와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했다.



3



4

# 66

## 디지털교과서와 인터넷 자료를 활용해 보고, 듣고, 만지는 체험형 콘텐츠로 학생들은 수업에 쉽게 몰입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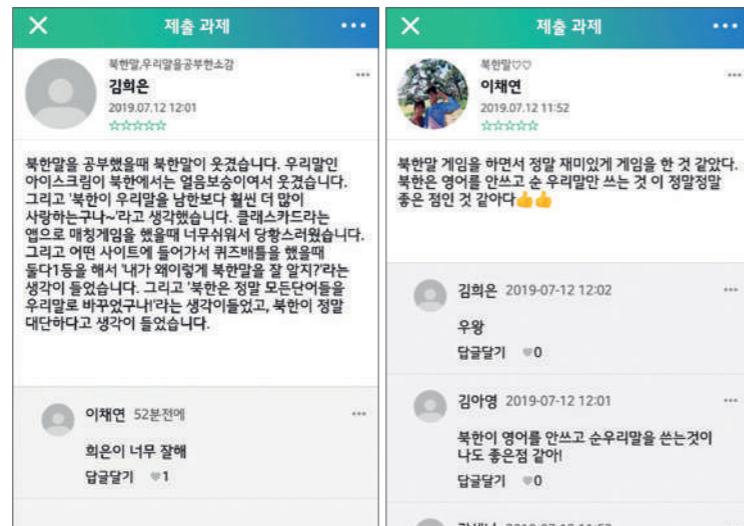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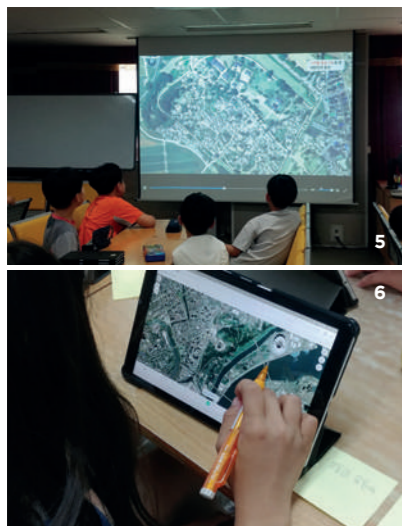
99

학생들은 남북이산가족 디지털박물관(reunion.unikorea.go.kr/museum) VR 체험으로 마치 실제 박물관에 온 듯 생생하게 둘러보며 이산가족이 처한 상황을 알아보고, 클래스카드 어플을 활용해 퀴즈게임처럼 재미있게 북한말을 배우기도 했다. 사회과 디지털교과서의 실감형 자료를 통해 독도의 자연환경을 살펴보고, NIE(신문활용 교육)를 통해 통일 기사를 작성하는 활동도 진행됐다. 디지털교과서와 인터넷 자료를 활용해 보고, 듣고, 만지는 체험형 콘텐츠로 학생들은 수업에 쉽게 몰입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똑같이 북한말을 배우는 활동이어도 이전에는 학습지를 이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어플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단어장을 만들고 퀴즈도 구성할 수 있어서 학습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또,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끝났던 활동에서 나아가 모둠별로 발표 자료를 만들고 위두랑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학생 중심 수업이 가능해질 수 있죠.”

56\_ 학생들에게 가장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은 디지털 영상지도를 이용해 평양 곳곳을 살펴본 활동이었다.

7\_ 각각의 활동 과정에서 위두랑은 자유로운 공론장이 됐다. 학생들은 수업 소감을 남기며 통일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했다.



### 위두랑 활용해 수업 소감·자유로운 의견 공유

가장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은 디지털 영상지도를 이용한 활동이었다.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모둠별로 평양 곳곳을 살펴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물건을 사고파는 곳’, ‘운동이나 경기를 하는 곳’ 등을 찾아보게 했다.

김 교사에 따르면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 한다. 그는 “기존에 생각해 온 북한의 이미지와 다르게 지도상에 백화점도 나오고 학교도 있고, 도심 곳곳에 공원이 많으며 아이들이 신기해했다.”라며 “학생들 입장에서는 북한 사람들의 삶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라고 전했다.

각각의 활동 과정에서 위두랑은 자유로운 공론장이 됐다. 학생들은 위두랑을 통해 수업 소감을 남겼고, 통일에 대한 찬반토론도 이어졌다. 김 교사는 “수업 시간이 짧아서 한 사람씩 발표하는 데 제약이 있는데, 이때 위두랑을 사용하면 유용하다.”라며 “각자 위두랑에 통일에 대한 생각과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올리면 친구들과 서로 댓글을 남기며 즉각적인 피드백도 가능해서 의견을 쉽게 공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학년별 눈높이 맞는 통일교육 콘텐츠 필요”

이처럼 통일교육에 디지털을 융합한 새로운 수업 모델은 학생들의 주의를 끌면서 수업 참여를 높여 주도록 했다. 스마트 환경에 익숙한 미래세대에 맞게 통일교육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함을 알리는 지점이다. 다만 통일교육의 방법에 대한 문제보다, 여전히 통일교육 그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교사가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김 교사는 통일교육에 대한 일관된 교육과정이 없고, 학년별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아이들만큼이나 선생님들도 통일교육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라며 “통일교육 교과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교과서처럼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와 콘텐츠가 풍부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교육주간 이외에도 꾸준히 교사들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더 많은 교사가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연수가 더욱 활성화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7

### 김하성 교사의 디지털 활용 통일교육 프로그램

- 통일의 필요성 인식시키기**
  - 통일 필요성 인식을 위한 모둠토의학습
  - 남북이산가족 디지털박물관 체험학습
  - 위두랑 기반 온·오프라인 통일 토론
- 민족공동체 의식 기르기**
  - 디지털교과서로 독도의 자연환경 알아보기
  - 진돗개와 풍산개에 대해 조사하기
  - 클래스카드로 북한말 익히기 및 퀴즈배틀
- 북한 이해 돕기**
  - 북한의 문화유산 조사하기
  - 디지털 영상지도로 평양의 곳곳을 살펴보기
- 남북 협력 태도 기르기**
  - DMZ에 사는 동물 알아보기
  - NIE 활용해 남북 협력 신문기사 쓰기
  - 학부모와 함께 통일 관련 가족체험학습 하기

담임 생활 28년! 거쳐 간 제자만 1500명

# 1등보다 꼴찌에게 더 마음 쓰는 '맹자선생님'

30년 교사생활 동안 28년간 담임을, 더욱이 고3 담임만 18년 동안 맡으면서 씬 없이 달려온 서울 한영고 신동필 교사. 지난 3월엔 역사 소설 <창업>을 집필, 책으로도 펴냈다. 시대의 모순과 문제를 바로 보며, 신념과 열정으로 살다 간 정도전 이야기. 이 책은 건강한 어른으로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건네는 선물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교사로서는 최고의 영예일, 올해 대한민국 스승상에서 대상을 받은 그를 만났다.

글 김혜진 객원기자



66  
우리 반 꼴찌를 좋은 학교, 원하는 학교에 보내는 게 선생님의 첫 번째 목표다.

99

그는 늘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10분의 자투리 휴식시간조차도 학생들에게는 허투루 보내지 말 것을 당부하곤 했다. 그가 맡았던 28년간의 담임, 그중에서도 18년은 3학년 담임이었다. 그가 교실을 떠나지 않은 건 담임교사로서의 책무, 그 '무한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정년을 4년 앞둔 현재도 그는 어김없이 1학년 1반 담임이다. 서울 강동구 한영고등학교(교장 구영진)에서 역사 교과를 담당하는 신동필 교사(59). 그는 지난 5월 22일, 제9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에서 교사로서는 최고 영예인 대상 및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그동안 담임을 맡아 졸업시킨 학생 수만도 1,500명 남짓. 어느덧 40대에 들어선 졸업생 제자들은 늘 곁을 지켜주었던 스승께 헌정하듯, 그의 이름을 딴 장학회를 만들었다. '동필장학회'다. 한영고에서는 4년 전부터 해마다 6명씩, 동필장학금을 받으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 그를 웃고 울렸던 'DP사단' 제자들

"1990년 교직에 첫발을 들이면서 가장 먼저 기본에 충실한 교사가 되자고 결심했죠. 아이들과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교사가 되려고 노력했고요. 제가 1993년부터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면서 졸업시킨 아이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모임이 '한영고 DP사단'입니다."

이번에 신 교사가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을 받으면서 누구보다 기뻐하고, 또 축하해 준 이들이 바로 'DP사단' 제자들이었다. 이들은 스승의 재학생 제자들에게 든든한 멘토 역할을 자청하기도 한다.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대학생 선배 멘토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미국 MIT와 하버드대학 등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후배들을 위한 특강을 마련해 주는

- 1 \_ 짧은 휴식시간도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교실 한편에는 신 교사의 책상이 마련되어 있다. 그가 교실을 떠나지 않은 건 담임교사로서의 책무, '무한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 2 \_ 신 교사는 올해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에서 교사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 및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제자들도 많다. 담임을 맡았던 졸업생 수가 1,500명을 훌쩍 넘다 보니, 그를 아프게 했던 제자들의 사연도 적지 않다. 1993년 첫 담임으로 만났던 그 아이도 그랬었다. 부모님의 부재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했을 때, 2주 만에 기어이 자신을 찾아낸 선생님과 학교로 돌아오면서 목놓아 울던 아이였다. 신 교사는 그 아이와 함께 걸으며 흘렸던 그날의 눈물이 아직도 또렷하다고 했다. 또 10년 전, 게임 속 가상공간에서만 비로소 행복하던 아이, 졸업 후에도 현실 세계에 적응하지 못한 채 방황하던 아이, 이내 하늘의 별이 되어 스승의 가슴에 묻힌 애달픈 제자였다.

**유년의 글공부에서, 맹자강독 쌤으로!**

신 교사가 담임을 맡으면, 가장 먼저 학급의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다. “우리 반 꼴찌를 좋은 학교, 원하는 학교에 보내는 게 선생님의 첫 번째 목표다”라고. 교직 부임 초기, 그렇게 일등보다 57등에게 더 눈길과 마음을 주었던 신 교사. 현재도 그와 같은 생각과 목표에는 변함이 없단다. 꼴찌들의 무한한 변화와 성장을 지켜보는 게 교사로서는 더 없는 감사이고, 행복이기 때문이다.

“학기 초에 학생들과 상담을 하면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묻고, 또 생각하게 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느끼면, 강제성을 띠지 않아도 공부해요. 저는 반 아이들에게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중간고사에서 150등을 한 아이가 있었어요. 좀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했죠.

상담하면서 그 아이에게 ‘네가 가진 능력의 반의반도 사용되지 못한 것 같다’라고 깨우쳐줬죠. 아이는 이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리면서 승승장구, 결국 1등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한 학기 만이에요.”

신 교사에게는 ‘3초 강사’라는 닉네임이 하나 있다. 방과후 학교 수업이 개설되면, 3초 이내에 마감되면서 붙여진 별명. 그가 20년째 운영하는 ‘맹자강독 동아리’ 역시 한영고의 대표적인 동아리 수업으로 평가받는다. 50여 년의 시간을 거스른 유년 시절, 충북 괴산의 외가에서 공부했던 한학과 고서의 향이 마냥 좋았다. 신 교사. 외조부로부터 한학을 배웠던 이 유년의 추억들이 그를 역사교사와 역사소설가,



3



3 \_ 신동필 교사는 30년간 기본에 충실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교사가 되고자 노력해 왔다.  
4 \_ 30년간의 교직생활 중 28년을 담임을 맡았던 신 교사. 그의 손을 거쳐 간 제자만 1,500명으로 선후배가 서로 밀고 당기며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었다.

또 맹자강독 선생님이로 이끌었는지도 모른다. “맹자와 논어 강독은 이미 선배들로부터도 대입에서 후한 평가를 받았다는 입소문이 난 터라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요. 학업 성취도가 낮았던 국·영·수 주요 교과목에 흥미를 잃었던 아이들도 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학업에 자신감을 되찾은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정도전을 품은 소설 <창업>의 작가로!**

한국사 수업에서 신 교사가 선호하는 방식 중 하나는 바로 토론 수업이다. 예를 들면, 고려말에서 조선 초기로의 이행, 시대를 쥐락펴락하던 인물을 대상으로 토론 수업이 진행되곤 한다. ‘이방원, 정도전, 정몽주’에 대해 친구들끼리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이

다. 학생들의 격론이 갈무리될 즈음, 신 교사가 마지막으로 늘 빠뜨리지 않는 강의가 있다. 500년 조선왕조의 설계자 ‘정도전론’이다. 언젠가 ‘동필장학회’ 정기모임에서 신 교사는 선뜻 약속 하나를 하고 말았다. 수업시간에 들려줬던 ‘정도전’에 대한 서사를 책으로 엮어 한 권씩 선물한다는 약속이었다. 그리고 지난 3월, 그가 직접 집필한 정도전에 관한 역사소설 <창업>은 발간됐다.

“수업과 병행하다 보니 책이 나오기까지 5년 이상 꼬박 걸린 셈입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소설작법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공부가 필요하기도 했고요. 원고 집필하고, 수정하고, 다시 고쳐 쓰고, ‘내가 어찌자고 제자들과 이런 무모한 약속을 했을까?’ 했을 만큼, 힘든 작업이었죠.” 약속처럼 소설 <창업>은 제자들에게 한 권씩 이미 우편으로 전달됐다. ‘한영고 DP사단’ 졸업생 모임은 스승의 날이 있는 매년 5월에 갖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위험이 장기화되면서 9월 둘째 주로 미뤄졌다. 후배를 돕는 일에 늘 발 벗고 나서주는 졸업생 제자들에게 ‘사단장으로서’ 들려줄 만한 인사말을 요청했더니, 신 교사는 마치 어느 드라마 대사처럼, 짧게 들려줬다.

**“DP사단 친구들아, 고맙다. 사랑한다!”**

앞으로 남은 4년, 신 교사는 30년 전의 그 자신처럼, 교직에서 막 첫발을 떼는 후배 교사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



# 배움과 소통이 있는 거꾸로교실

거꾸로교실은 학생들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고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을 만든다. 수업 시간이 즐거워지니까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다음에는 아이들과 어떤 수업을 해 볼까 항상 기대가 된다.

글 한수인 신탄진고등학교 교사

거꾸로교실 수업 모형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서로 설명하고 다양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보니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수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아이들끼리 웃고 떠드는 수업이 과연 공부가 될까 하는 시선도 있고, 고등학교 3학년은 EBS 수능특강 교재로 대부분 수업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업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1, 2학년 수업을 모두 거꾸로 수업으로 진행했는데 결론은 고3이기 때문에 더 거꾸로 수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아이들의 학습 속도가 다르므로 일방적인 강의만으로는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자신의 속도로 디딤영상(교사가 직접 제작한 강의 영상)을 시청하고 각자 필요할 때 영상을 멈춰서 필기도 하며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어서 내용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다. 강의를 들으며 궁금한 것은 온라인(팀버스 어플)과 오프라인으로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다. 고3 수업을 할 때 디딤영상이 있어서 도움이 됐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 영어 수업은 거꾸로 수업을 하니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는 어떤 학생의 말에 감동을 받기도 했다.

물론 거꾸로 수업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아이들과 만나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많다. 디딤영상을 촬영해서 공유하고, 수업 시간에는 어떤 학생 중심활동을 할지 미리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짝과 함께 또는 모둠으로 학습내용을 자신의 말로 정리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은 적다. 사실 교사의 역할이 적을수록 아이들에게 공부가 되고 기억에 남는 수업이 된다.

고3 수업은 수능특강 교재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2 \_ 고3 수업에서는 모듈별로 서로 다른 내용을 재구조화하여 설명 자료를 제작하고, 서로 다른 모듈에 가서 설명하는 방식의 수업이 이뤄졌다.(2019 교육활동 사진)

주로 모듈별로 내용을 재구조화하여 4절지에 정리하고 서로 다른 모듈에 가서 설명하는 방식을 자주 했다. 별도의 학습지가 필요 없는 수업 방식이라 자신이 맡은 부분을 설명하고 다른 친구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각자 코넬 노트에 체계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게 했다. 코넬 노트는 자신의 노트에 글의 주제, 단어, 내용 구조화, 심화 과제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험 기간에 그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코넬노트를 처음 작성할 때는 낯설어했지만 곧 아이들이 다른 과목에도 새로운 정리 방법을 적용하여 꾸준히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온라인 개학도 거꾸로 수업으로 OK

2020년은 많은 교사들에게 도전과 혼돈의 해로 기억될 것이다. 기존에 거꾸로 수업을 해왔던 선생님들은 강의 영상 제작에도 익숙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을 해왔던 터라 부럽다는 시선도 받았다. 하지만 거꾸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의 걱정은 훨씬 더 컸다. 다른 수업 모형과 마찬가지로 거꾸로 수업도 오프라인에서 소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 언제 등교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3 학생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온라인 개학에 앞서 3월 초에 팀버스(미래교실네트워크와 연동되는 교육용 어플)를 개설하고 얼굴도 모르는 학생들을 초대했다.

팀버스에 몇 가지 오리엔테이션 영상(협업을 강조하는 애니메이션, 동기부여 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통해 학생들과 인사하고 소통했다. 그리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다. 디딤영상과 함께 강의 내용을 봐야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고 비밀 댓글을 작성하게 했다. 강의 내용에 질문이 있을 때는 공개 댓글이나 채팅을 통해 질문하고 답을 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4월에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더 다양한 과제와 미션을 제시했으며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되었다. 온라인 수업에서 제시한 과제 중 질문 만들기, 핵심 단어 5개 쓰기는 등교 개학 후 대면 수업 활동으로 연계했다. 온라인 수업에서 친구들이 만들었던 질문에 자신의 답을 작성하여 돌려주고, 미리 선정한 핵심 단어

1 \_ 네이버 밴드에 만든 2학년 학생들의 온라인 영어 학습방



# 66 온라인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대면 수업 활동이 더 깊이 있고 다양해졌다.

99

3 \_ 팀버스 어플은 강의 관련 영상이 업로드되고 학생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이 된다.



3

를 이용해서 내용을 재구조화하는 활동이다. 온라인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대면 수업 활동이 더 깊이 있고 다양해졌다.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큰 고민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분이었는데, 재능기부를 할 영어학습기획단을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선정하여 몇몇 학생들과 함께 팀을 구성했다.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할 자료를 만들고, 온라인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업 방향을 정할 수 있었다. 3-5월 간 이뤄진 온라인 수업을 돌아보니 강의 제공뿐 아니라 설문조사, 퀴즈, TED 강의, 팝송 수업, 줌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진행했다.

### 온라인 수업의 수행평가는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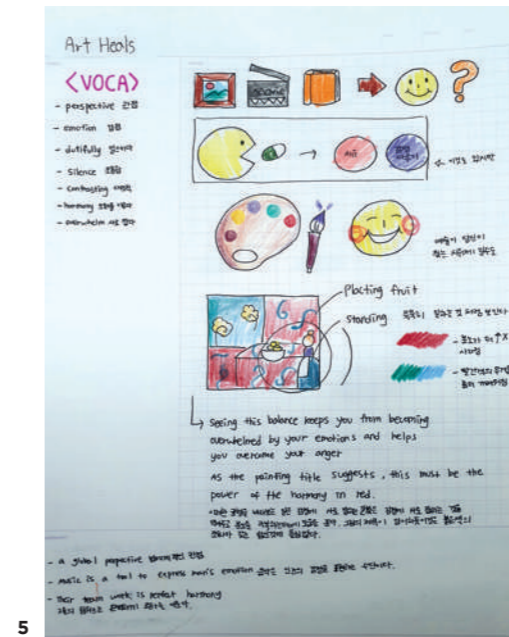
고2 수업은 전체 플랫폼이 네이버 밴드로 정해져서 밴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수업을 진행했다. 등교 개학이 자꾸 연기되어 수행평가 비율과 항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를 실시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왔을 때 오히려 부담이 적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수업이어서 할 수 없는 것 말고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하겠다고 하면 성적과 관련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질문이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그래서 라이브방송으로 수행평가 방법과 채점 기준을 설명하고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다.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 외부의 도움이라서 내가 그 외부의 도움이 되기로 했다. 자신의 진로 분야나 흥미 있는 분야에 대한 원고작성, 인터뷰, 추가 질문 등 3단계 수행평가



4 \_ 온라인 개학 중 이뤄진 원격수업  
5 \_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학습한 내용을 각자 코넛노트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4



5

에서 내가 작성한 원고 샘플을 제시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 영작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빈칸만 채워서 작성해도 되는 원고 양식을 제공했다. 밴드 라이브 방송 후 원고를 바로 작성하고 3일 후에 원고를 제출하게 했다. 인터뷰 하루 전날에는 그룹을 나누어 순서를 정하고 30분 단위로 다른 줌 회의링크를 만들어서 밴드에 공지했다. 드디어 인터뷰 당일, 첫 줌 수업이 수행평가라 문제가 없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평가에 반영되다 보니 아이들이 약속된 시간에 잘 참여하고 매우 진지한 자세로 집중했다. 인터뷰 과정은 먼저 원고를 보고 읽게 했는데, 그 이유는 줌 상황에서 원고를 보고 읽는지 혹은 외우는지 구분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 원고를 외우는 데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외워서 말하는 것은 교사인 나도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원고를 읽고 나서는 아이들의 원고 내용에 맞게 즉석에서 다양한 질문을 2개 했는데, 추가 질문을 통해 아이들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변별력을 높일 수 있었다. 온라인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역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피드백을 하는 동안 일대일로 더 밀접한 얘기를 나누는 느낌이었고, 수행평가가 다 보니 아이들이 더 집중해서 참여했다. 미래교실네트워크([www.futureclassnet.org/index.do](http://www.futureclassnet.org/index.do))에 접속하면 전국 또는 해외에서 거꾸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의 다양한 수업 활동 자료를 공유받을 수 있고, 지역별 오프라인 모임 정보를 알 수 있다. 오프라인 모임은 자율적인 연수 형태로 매번 새로운 주제로 실제 수업하는 선생님들의 사례를 듣고 실제 체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92



#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 학자금 대출 금리

**2.0%**  
↓  
**1.85%**  
(0.15%p 인하)



취업후상환대출(변동금리)의 경우

▶ 기존 대출자도 7월부터 1.85% 금리 적용

일반상환대출(고정금리)의 경우

▶ 2020년 2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1.85% 금리 적용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 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및  
국가장학금 II 유형 우선 추가 지원

신청기간

2020. 5. 4.(월) ~ 2020. 12. 31.(목)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http://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은 대학별 별도 공고·선발

2009년 이전 대출자 금리  
최고 7.8% → **2.9%** 전환 대출

신청기간

2020. 4. 27.(월) ~ 2021. 3. 22.(월) 18:00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http://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2009년 이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연체이자대폭 감면

신청기간

2020. 4. 27.(월) ~ 2021. 3. 23.(화) 18:00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http://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 교육

팬데믹의 경험은 수업의 질에 대한 이슈를 떠나 면대면 수업의 전면적 대체제로서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모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에게 남겼다. 현 면대면 수업에 무게 중심이 기울어져 있는 학교체제의 중심을 상당 부분 온라인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20 대한민국 에듀테크 산업과 디지털 뉴딜정책

22 언택트 시대, 그리고 우리 교육의 균형점

27 미래 교육 실험실, 거꾸로캠퍼스에서 배운다

# 대한민국 에듀테크 산업과 디지털 뉴딜정책

글 공영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 에듀테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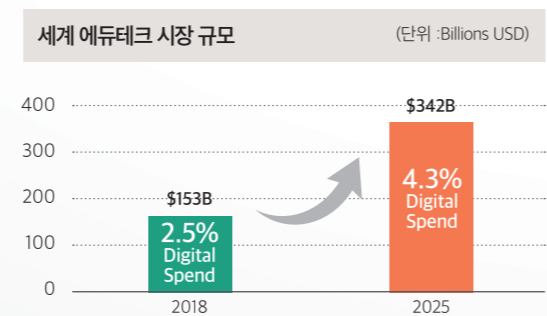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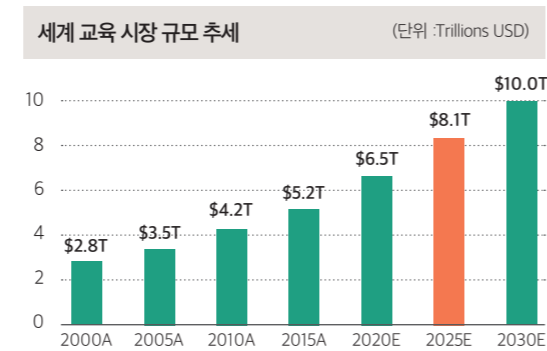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우리는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ICT와 SW기술이 접목되어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분야는 에듀테크다.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교육에 ICT기술을 접목해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는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는 기술을 의미한다. 최근 에듀테크는 인공지능,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자에 대한 분석과 의사소통, 정보관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제고시키는 방향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무크, 온라인 교육, 디지털교과서, 스마트기기 등도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에듀테크에 포함될 수 있다.

## 에듀테크 산업, 잠재력이 큰 시장

에듀테크의 기본 환경인 세계 교육 시장은 2020년 기준 6조 5천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우리 돈으로 7,8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550조 원, 전세계 가전 시장이

1,340조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에듀테크가 차지하는 시장은 2018년 1,530억 달러에서 2025년 3,42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전체 교육 시장에서 에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2018년 기준으로 에듀테크가 교육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2025년에도 이 비중은 4.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세계 교육 시장 규모 추세와 에듀테크 시장규모



출처 : Holon IQ(2020. 1. 28)

이처럼 에듀테크 산업 규모가 작은 것은 교육부문의 디지털화가 상대적으로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맥킨지(McKinsey Global Institute)가 2015년에 발표한 디지털화 지수(Digitization Index)에 따르면, 교육 분야는 총 22개의 산업군 중 14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에듀테크 산업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디지털전환의 시대, 과거에 머물러서는 교육의 미래는 없다

“우리는 문제에 직면할 때, 진정으로 생각한다.”

We only think when confronted with a problem.

- John Dewey

우리나라를 특징짓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높은 교육열(教育熱)’과 ‘우수한 ICT 인프라’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 특징의 조합 즉, 우리나라 교육 분야의 ICT인프라와 환경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에 컴퓨터와 스마트기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다수의 학부모·교사의 부정적인 인식, 학교 내 무선랜 설치 시 보안성 이슈, 스마트기기 도입비용 부담, 민간 기업의 공교육 시장 참여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좀처럼 개선이 되지 못한 채로 지속되어 왔다.

그러다 예기치 않게, 코로나19가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유례없는 온라인 개학으로 우리 사회는 교육부문의 디지털화와 에듀테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원격수업을 하기 위한 스마트기기 확보, 인터넷접속 환경 제공, 온라인교육플랫폼 서버 과부하, 학교 내 무선인터넷 인프라 문제, 콘텐츠

부족, 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한 설비 부족, 취약계층 지원문제 등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디지털전환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슈들을 모든 교육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문제 인식과 변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위기가 가져다준 소중한 기회이다.

##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초·중·고 38만 교실에 와이파이존을 구축하고, 전국 38개 국립대 노후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전면 교체를 추진한다. 또한,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와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코로나 위기를 교육환경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미래투자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만 교육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당연히 디지털 환경에 걸맞은 교육의 방향설정과 교사들의 디지털교육 역량 함양,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전환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과 이를 길러주는 교육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시점이다. 교육철학자 존 듀이(John Dewey)의 통찰처럼 과거에 머물러서는 교육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②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오늘 가르친다면, 아이들의 내일을 강탈하는 것이다.”

If we teach today's students as we taught yesterday's, we rob them of tomorrow.

- John Dewey



# 언택트 시대, 그리고 우리 교육의 균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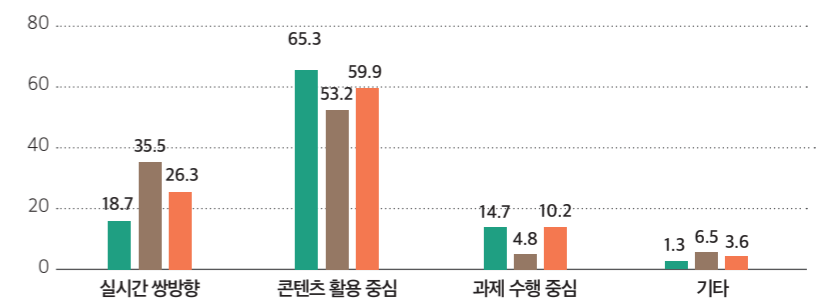
글 계보경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책연구부장

유네스코가 지난 4월 19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새로운 학기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전 세계 학생의 91%인 16억 명이 등교하지 못하고 가정에 머물렀다. 감염병의 확산은 전 지구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이의 관계를 맺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관계에 기초한 사회적 자산을 전수해온 전통적 학교교육의 체제적 변화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대면 수업의 전면적인 대체제로서 등장한 원격수업은 학습을 위한 필수적 환경과 도구로서 테크놀로지의 활용 외에도 온라인상의 학습에 대한 시수(학점) 인정 등의 제도적 측면에서부터 비대면 수업을 위한 새로운 교원의 역량 개발, 가정의 학습 지원 책임 강화에 이르기까지 불가피한 교육체제의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 원격수업 기간 진행된 수업유형

급작스러운 사회적 요구 속에서 시작된 원격교육은 두 달여 남짓이 흐르면서 멈춰진 학교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대안으로 교육 현장에 조금씩 자리매김하고 있다. 온라인 개학으로 시작된 원격교육 기간 학교와 가정에서는 어떠한 수업이 이루어졌을까?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을 장점으로 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미리 녹화된 강의자료로 학습을 하는 강의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과 강의형 수업에 더해 부가적인 학습 활동을 하는 강의+활동형 콘텐츠 활용 수업, 교사가 제시한 온라인 과제를 수행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다양한 유형의 수업이 제안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2개 이상의 혼합형 수업을 했다는 응답이 43.3%로 높게 나타났으며, 혼합 방식에 있어서는 과제 수행 중심 수업과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을 혼합한 형태가 82.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sup>1</sup><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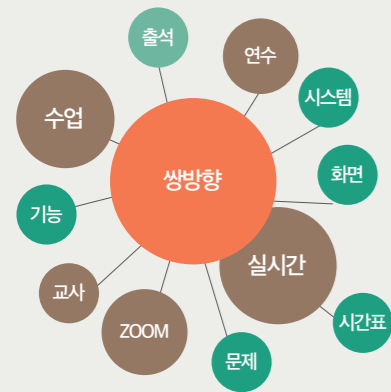
[그림1] 원격수업 기간 진행된 수업유형 (단위: %)



학습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테크놀로지 활용이 필수화되면서 실제 학교에서는 각 유형별로 다양한 IT 플랫폼과 콘텐츠의 활용이 일상화되었는데, 교육부의 온라인 개학 발표 이후 SNS 기반 공개 교사 커뮤니티에 게시된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 관련 게시물(426건)과 댓글(2,420건)을 대상으로 한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sup>2</sup>와 원격교육 현장 지원 교사로 구성된 1만 커뮤니티 소속 교사 4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업도구 활용 실태<sup>3</sup>를 수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2·3·4>.

1 교원 224,894명 대상. 4.27-29.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한 설문 조사 결과  
 2 정광훈, 김찬희(2020). 빅데이터를 통해 본 원격수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 계보경, 백송이, 손정은(2020). COVID-19 확산 예방조치 온라인 개학에 따른 초·중·고 원격학습 현황 1차 조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림2] 실시간 쌍방향 수업(연관어)



▶ 주로 활용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도구

- Zoom 59.2%
- 구글 행아웃/Meet 14.2%
- 기타 10.0%
- 유튜브 라이브 5.8%
- 카카오톡 라이브 5.0%
- 시스코 WebEx Meeting 1.7%
- 네이버라인웍스 1.7%
- 리모트미팅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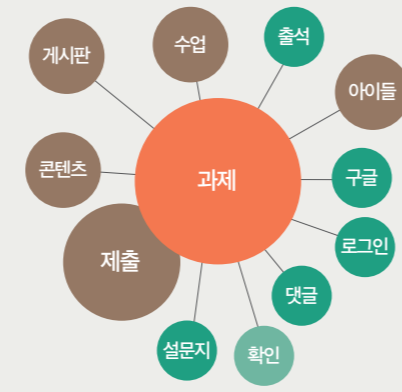
[그림3] 콘텐츠 중심 수업(연관어)



▶ 주로 활용하는 콘텐츠

- 자체(본인)제작 콘텐츠 47.8%
- 교육부·KERIS개발 콘텐츠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등) 35.5%
- EBS강좌 34.9%
- 타교사 개발 공유 콘텐츠 17.2%
- 민간개발 콘텐츠 13.6%
- 기타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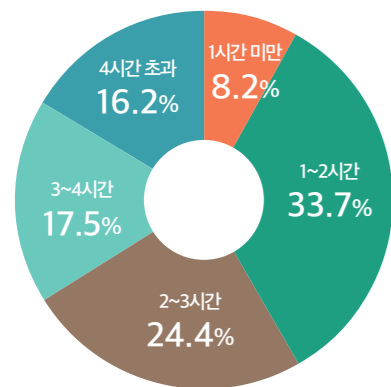
[그림4] 과제 수행 중심 수업(연관어)



▶ 과제제시와 피드백 도구

- e학습터 23.8%
- 위두량과 디지털교과서, EBS 온라인클래스 16%
- 클래스팅 13.1%
- 카카오톡 12.7%
- 기타 11.9%
- 네이버밴드 11.5%
- 구글 클래스룸 10.2%
- MS팀즈 0.8%

[그림5] 1차시 평균 수업준비 시간



다이어그램과 그래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각각의 수업유형별로 현장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상이하며, 공공 콘텐츠에서 민간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구와 콘텐츠가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에 있어 교사가 스스로 제작한 콘텐츠의 활용 비율이 47.8%로 나타나 거의 과반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교사들이 수업 준비에 직접적 부담 요인으로 보이며, 1차시 원격수업 준비에 소요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최소 1~2시간(33.7%)에서 3시간 이상(33.7%)인 교사들의 비율도 높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한편, 1만 커뮤니티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의 유형별 효과성 인식결과, 강의+활동형 콘텐츠 활용 수업이 평균 4.21점으로, 강의형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이나(평균 3.99), 실시간 쌍방향 수업(3.95), 과제 중심 수업(평균 3.78)보다 일정부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의 위기대응 상황에서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 실시간 쌍방향 수업보다는 학생들의 학습 속도와 환경에

따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강의+활동형 콘텐츠 활용 수업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OECD 98개국 교육전문가, 코로나 위기 속 가장 어려웠던 과제는?

OECD가 98개국의 교육입안자·전문가를 대상으로 코로나 위기 기간 내에 가장 해결이 어려운 과제가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sup>4</sup> △학생들의 학습의 연속성 보장 △독립적인 공부를 위한 기술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 △교사들을 위한 지원 △학습 평가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 △부모와 양육자들의 학생 학습 지원 등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부가 지난 4월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 10명 중 6명(64%)은 지난 한 달여 간 원격수업이 자녀 학습 결손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가정 내 학습과 생활을 지도할 사람의 부족(49%), 접속 지연 등 원격수업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해결의 어려움(23%)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교사 224,894명이 꼽은 원격수업의 제약점도 학생 출결 확인의 어려움(56.6%), 수업 자료 제작에 있어 저작권 침해의 우려(41.3%), 수업 준비 시간 부담(42.2%)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교사들을 위한 전문적 지원, 조연과 더불어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그러나 위기상황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와 애로사항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앞선 조사에서 98개국의 리더들은 위기상황에서 예기치 않았던 긍정적 측면으로 △기술과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입할 수 있고 △학생들의 학습 자율성이 증가하였으며 △부모의 개입과 협력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 측면도 발견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팬데믹 경험은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기폭제

이 밖에도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의료 등 교육과 다른 분야와의 협력 증가, 교사들의 교육 자율성 증가, 세계시민 의식과 관련된 학습 기회 제공,

4 OECD(2020). A framework to guide an educatio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of 2020 한국어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66

우리 교육의 균형점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배움을 위한 진정한 소통을 놓지 않는 모두의 노력에서 시작될 것이다.

99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강화 등이 미래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긍정적 시그널이 되고 있다.

인식적 측면에서 팬데믹의 경험은 수업의 질에 대한 이슈를 떠나 면대면 수업의 전면적 대체제로서 테크놀로지에 순수 의존한 원격교육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모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에게 남겼다. 이는 현 면대면 수업에 무게 중심이 기울어져 있는 학교체제의 중심을 상당 부분 온라인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코로나 이전에도 개개인의 생애 설계(life-design)를 위한 역량 개발, 지역의 사회문화적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는 중심학습센터, 나아가 학교에서만 학습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도시 혹은 마을 전체가 학습공간이자 자원이 되는 학교(City/Town as a extended school) 등 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지속해왔다. 그러나 온라인 개학을 정점으로 집합 교육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해 온 학교 교육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재인식은 혁신적 교육모델에 대한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춰 학교 교육의 모델을 더욱 다원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비록 사회에 내재해있던 불평등과 격차였을지라도 이번 원격교육의 경험을 통해 드러난 △가정에서 직접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모의 지원 차이 △원격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역량 차이 △자기주도적으로, 혹은 온라인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의 탄력성 차이 등(OECD, 2020)으로 귀인되는 교육격차의 문제 해소를 위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더욱 진정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달여가 지난 지금에도 각국은 점진적으로 학교 재개교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가 아닌 어쩌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일상, 우리 교육의 균형점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배움을 위한 진정한 소통을 놓지 않는 모두의 노력에서 시작될 것이다. ㉔



1 \_ 줌(Zoom)을 통해 화상으로 소통하는 거꾸로캠퍼스 이성원 교장과 학생들

## 미래 교육 실험실, 거꾸로캠퍼스에서 배운다

코로나19 이후 교육환경과 교육방법의 혁신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2017년 설립한 공교육 실험학교 거꾸로캠퍼스의 학생들은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도 사이버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며 교실 밖에서 배움의 폭을 넓혀나갔다. 거꾸로캠퍼스를 통해 미래 교육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글 양지선 기자

거꾸로교실(Flipped learning)은 수업에 앞서 교사가 제공한 동영상 등의 자료를 먼저 학습한 후, 실제 강의 시간에는 토론이나 모둠 활동을 하는 수업 방식을 말한다. 이를 통해 교실은 일방적인 강의를 듣는 곳이 아니라 학생 중심 활동이 이뤄지는 곳이 되고, 자연스럽게 수업의 주체 역시 교사가 아닌 학생으로 바뀐다. 공교육 속에서 거꾸로교실 전파에 힘써온 '미래교실네트워크' 교사들은 시대에 맞는 학교 모델을 만들어보겠다는 마음으로 교실을 나와 지난 2017년 거꾸로캠퍼스를 설립했다. 카카오, 엔씨소프트, 넥슨, 다음, 네이버 등 IT 벤처기업 창업자들이 투자한 기부펀드 'C프로그램'으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지원도 받았다.

### 학생 스스로 배우고 싶은 걸 정하는 학교

거꾸로캠퍼스의 미션은 '21세기에 가장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학교'다. 이를 위해 학생이 원하는 배움을 스스로 찾아내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2 \_ 지난 5월 22일 열린 배움장터에서는 학생들이 각자 연구해온 주제를 화상으로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이곳의 수업에서는 학생 간의 소통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학습이 이뤄진다. 개인으로, 또 팀으로, 각자의 관심사를 주제로 정해 깊이 있게 탐구한다. 예를 들어 타투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직접 타투이스트를 만나 인터뷰도 하고, 타투에 담긴 사회학적·역사적 의미를 찾기 위해 논문도 찾고 전문 도서도 구입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역으로 제안한 학습 주제가 정해지면 회의를 통해 교과별 학습 콘텐츠를 구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교과 간 협업이나 코칭도 이뤄진다. 교과서를 보고 배우는 강의식 수업은 없다. 그렇게 학생들은 한 모듈 동안 배운 점에 대해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은 후, 다음 모듈에 해당 주제를 발전시키기도 한다. 모듈은 거꾸로캠퍼스의 학기 개념으로, 1년에 4개 모듈로 구성된다.

이곳은 무학년제에 평가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서로를 다투는 경쟁을 부르는 배움 앞에서 동등한 구조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인 셈이다. ‘에코’라고 불리는 이성원 교장은 “거꾸로캠퍼스에서는 ‘연결’과 ‘확장’이란 개념을 배운다. 삶과 교과를 연결하고, 또 교과와 교과를 연결해 종합적 사고로 확장한다.”라며 “연결하고 확장하는 지식습득 방법을 경험했기 때문에, 학교를 나간 이후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전했다.

### 오프라인 수업 그대로 온라인에서 실현

거꾸로캠퍼스는 지난 3월 9일 일반 학교에 앞서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다. 신입생 30명을 포함해 전체 93명의 학생과 8명의 교사가 화상으로 만났다. 오프라인에서 진행됐던 수업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오기 위해 ‘마인드 마이스터’, ‘구글 문서’ 등을 협업 툴로 선택하고,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사용법을 먼저 강의했다. 에듀테크 활용역량을 기른 학생들은 사이버상으로도 문제없이 소통하고 토론하며 학습을 이어나갔다.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 때와 마찬가지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학생들은 원격수업 중 ‘음소거 하더라도 화면은 켜놓기’, ‘자리를 비울 때는 양해 구하기’ 등의 규칙을 스스로 정했다. “만약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었다면 학생들이 오랜 시간 집중하지 못했을 텐데,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주제로 학습하기 때문에 소외되는 학생 없이 참여했다.”라고 이 교장은 말했다. 그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도 원격수업으로 잘 대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덧붙였다.

### 평가 대신 성장을 증명하는 ‘배움장터’

이번 모듈의 마지막 시간이었던 지난 5월 22일은 온라인 배움장터가 열린 날이었다. 배움장터는 학생들이 한 모듈을 마친 후, 각자 연구해온 개인 주제와 팀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다.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와 시험이 없는 대신, 배움장터를 통해 그동안의 성장을 증명하게 된다. 학생 한 명당 1년에 4개의 개인 주제 발표와 1개 이상의 팀 프로젝트 발표를 소화한다.

전면 원격수업이 이뤄진 만큼 이번 배움장터 역시 줌(Zoom)을 활용해 누구나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쓴 역사 소설의 집필 과정을 이야기하거나, 캐릭터 디자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등 본인이 탐구해온 주제를 소개했다. 팀 프로젝트로 침체된 광장시장 한복거리를 살릴 방법을 고민한 ‘H:SOK’ 팀은 한복 견적 비교 앱 ‘한땀’ 출시를 앞두고 그동안의 과정을 발표했다. ‘ISLB’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한 공교육에서는 거꾸로캠퍼스의 교수·학습 모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팀은 동네서점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으로 독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제안했다. 배움장터를 마친 후 아이들이 성취감으로 고양된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하다는 김광호 교사는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 자신의 관심사를 찾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며 “교사로서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시간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 거꾸로교실, 원격수업 대안이 될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한 걸음씩 내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한 공교육에서는 거꾸로캠퍼스의 교수·학습 모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자료와 영상을 활용한 기존의 원격수업을 넘어, 등교수업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 미래 교육, 교육혁신을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전국 초·중·고 38만 교실에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그에 걸맞은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교육환경에 발맞춰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워 나가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

3 \_ 침체된 광장시장 한복거리를 살릴 방법을 고민한 ‘H:SOK’ 팀은 한복 견적 비교 앱 ‘한땀’ 출시를 앞두고 있다.





#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학교교육, 해외에서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해외 각국의 학교교육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국외 COVID-19 대응 학교교육 대처 방안 사례'에 따르면, 많은 나라에서 대입 등 주요 시험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또한, 대부분 온라인 가정학습을 진행 중이다. 국내와 비교해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다른지 코로나19 상황 속 해외교육 현황을 알아본다.

글 편집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서는 지난 4월 9일 사상 최초로 온라인 개학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에 차질 없도록 학습관리시스템과 다양한 학습 플랫폼 등을 사전에 확충하고, 스마트기기 대여와 모바일 데이터 지원을 통해 원격수업 운영 기반을 구축했다. 이어 지난 5월 20일 고3 학생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 개학에 돌입했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까.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5월 11일 발표한 '국외 COVID-19 대응 학교교육 대처 방안 사례'에서는 각국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원격교육 현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중국**은 4월 13일 이후부터 복경 소재 전 학생이 국가 초·중·고 클라우드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수업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수업은 공통 시간표를 사용하며 매일 오전, 오후 15분간 전염병 예방에 대한 지식 교육, 공공안전교육, 눈 체조 등을 돌아가면서 시행하는 등 심리 건강교육을 강화했다.

4월에 학기가 시작되는 **일본**은 전국 초·중·고 대부분 학교에 임시 휴교가 명령됐고, 6월 1일부터 오전·오후반으로 나눠 분산 등교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재개했다. 각 학교에서는 휴교 기간에 여건에 따라 종이 교재나 TV 교육 프로그램 방송, 온라인 학습지원 사이트의 교재를 활용한 학습, 쌍방향 방식의 온라인 지도를 결합한 가정학습을 지원했다.



## 대부분 휴교 후 온라인 학습, 일본·싱가포르 등교 재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5월 31일까지 모든 공립학교에 휴교를 명령했다. 온타리오주는 휴교 중 온라인 학습이 이뤄지도록 자체적으로 웹사이트를 만들고 수학 및 문해력 관련 학습 콘텐츠를 제공했다. 또, 온타리오주 교육부는 TV 교육방송 채널과 협력해 3월 말부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는 지역교육청을 통해 2만 3천 대 이상의 컴퓨터를 학생들에게 대여해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BC주에서도 온타리오주와 마찬가지로 자체 웹사이트를 만들어 학생들의 원격학습을 지원했다.

코로나19 대응 모범국으로 평가됐던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난 3월 23일 등교 개학을 했으나, 확진자가 증가해 2주 만에 다시 온라인 가정학습으로 전환했다. 싱가포르는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여름방학 기간을 앞당기고, 6월 2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했다.

원격수업 기간이었던 4월 8일, 싱가포르의 한 중학교에서는 줌을 활용한 수업 도중 해커가 침입해 학생들 앞에서 충격적인 행위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모든 학교에서 줌을 이용한 원격수업이 금지됐으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한 이후로 전체 초·중·고 학교에서는 줌과 구글 미트, 시스코 웹엑스 등 다양한 화상 프로그램을 사용해 원격수업을 재개했다.

싱가포르는 기존에 SLS(Student Learning Space)라고 하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구축해 재학생들이 해당 플랫폼에서 학습 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SLS에서 자료를 받고,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와 수업을 하고, 구글 클래스룸으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뤄졌다.

엄격한 국가 봉쇄를 통해 확진자 확산을 막은 **뉴질랜드**는 방학을 3월 30일부터 4월 14일까지로 앞당기고, 개학일인 4월 15일부터 80만 명의 학생이 원격수업을 시작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온라인 학습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약 1만 7천 대의 디지털 기기를 공급했다. TV 교육방송 채널에서는 매일 약 6시간 동안 읽기와 쓰기, 수학, 과학, 음악, 체육, 부모를 위한 가정학습 지원 방법에 대한 교육 콘텐츠가 방영됐다.

### 학교 교육과정 운영 현황

- **중국** : 매일 2회 전염병 예방교육 등 심리 건강 교육 강화
- **일본** : 학교 여건에 맞춰 종이 교재, TV 교육방송, 원격수업 등 활용
- **캐나다** : 온타리오주 - 자체 웹사이트 제작해 학습 콘텐츠 제공  
BC주 - 원격수업용 컴퓨터 2만 3천 대 이상 학생들에 대여
- **싱가포르** : 학습 플랫폼 SLS에서 자료 활용, 화상 프로그램으로 수업 진행
- **뉴질랜드** : TV 교육방송 채널에서 매일 6시간 씩 가정학습 콘텐츠 방영

### 영국 주요 시험 일정 취소...프랑스는 수행평가 대체

코로나19로 인해 각국 주요 시험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앞서 우리나라는 대입 수능시험을 2주 연기해 12월 3일에 치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베트남**은 대입시험을 기존 6월에서 8월 8~11일로 연기했다. 대입시험이 연기되면서 대학 입학 시기도 10~11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호주**는 대입시험에 해당하는 GAT 시험 일정을 기존 6월에서 10~11월로 변경했다. 학교수업을 원격학습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학생평가를 위한 과제도 축소된 상황이다. **프랑스**는 논술형 대입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를 올해 이례적으로 논술 대신 교과활동과 수행평가 등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분기인 3~5월 학기 평가는 내신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중학교 졸업인증시험인 브레베도 내신평가로 대체한다.

**영국**은 GCSE(중등교육자격시험), A level(대입시험) 등 올여름에 계획된 주요 시험 일정을 전부 취소했다. 대신 현재까지 학생의 학업 성적을 바탕으로 공평하게 성적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자체학력평가인 EQAQ와 고등학교 문식력시험인 OSSLT를 취소했다.

**스페인**은 6월 초 예정이었던 수능을 6월 22일~7월 10일 사이에 실시하기로 했다. 5월에 예정됐던 초등학교 3, 6학년과 중학교 4학년 대상 진단평가는 취소됐다.

#### 주요 시험 일정

- 베트남 : 대입시험 6월→8월 8~11일로 연기
- 호주 : GAT 6월→10~11월로 연기
- 프랑스 : 바칼로레아/브레베 내신평가로 대체
- 영국 : GCSE/A level 일정 취소
- 캐나다 : 온타리오주: EQAQ/OSSLT 취소
- 스페인 : 수능 6월 초→6월 22일~7월 10일로 연기

### 특수학교·학습부진학생 위해 맞춤형 자료·보조 장비 등 지원

이처럼 학교교육이 힘든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장애학생이나 학습부진학생은 특히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됐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개학 기간 중 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원격수업을 진행하거나 1대1 방문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왔다.

**일본**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 자폐증, 학습장애 등 장애유형별로 세세하게 분류해 가정학습상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학습부진학생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학습량과 반복학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필요한 교재나 교구를 대여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아일랜드**는 특수교육을 위한 국가위원회(NCSE)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휴교기간 동안 가정에서 머물러야 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자료를 마련했다. NCSE 웹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학부모와 교사에게 각각 구분된 자료가 제공된다. 절제력 향상을 도와주는 놀이 활동,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대근육 및 소근육 발달 놀이 활동, 자폐아동의 조기 중재를 돕는 학습 활동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핀란드**는 학교에서 특수학급 학생과 연락할 수 있는 시간과 일자를 협의해 정기적인 상호작용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오디오북과 같은 보조 장비를 사용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했다. 전체 학생의 10~15%에 해당하는 학습부진학생에게는 기초교육에 사용되는 전자

#### 특수학교·학습부진학생 지원

- 일본 : 장애유형별 가정학습상 유의사항 안내
- 아일랜드 : NCSE 웹페이지 통해 특수학생 위한 온라인 교육 자료 제공
- 핀란드 : 기초교육용 전자교과서, 학습자료, 도구 등 무료 제공
- 뉴질랜드 : 교육부가 지원한 보조 장비 통해 원격학습 진행

교과서, 기타 학습자료, 도구를 무료 제공하고 개별 학생에 맞게 과제 난이도와 일정이 조정됐다.

**뉴질랜드**는 전국 봉쇄 기간에도 교육부 학습지원 전문가와 보조교사가 장애학생 지원 활동을 지속했다. 각 학교에서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보조 장비가 학생에게 할당되면 집에서 원격학습 교육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학습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규칙적인 일상 속에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



코로나19로 인해 각국 주요 시험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프랑스는 바칼로레아를 수행평가로 대체하고 영국은 GCSE, A level 등을 전부 취소했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 NH농협은행 방과후학교 강사 금융지원 사항

- ✓ 고정금리 3.3%, 최소 50만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 ✓ 대상자 : 방과후학교 강사로서 해당 학교를 거쳐 교육청 추천을 받은 자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새롭게 발표되는 교육정책을 해설하고  
교육계의 이슈를 집중 조명하는 등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더 넓고 깊게 소개합니다.

# - 더 넓고 깊게 정



- 36 이슈  
5월 20일 고3부터 순차 등교수업 개시
- 40 정책을 말하다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 45 이슈2  
‘고졸인재 일자리 콘서트’ 비대면 개최
- 48 교육자치 시대  
서울시교육청\_교권보호 정책
- 51 이달의 교육뉴스

5월 20일 고3부터 순차 등교수업 개시

# 다시 활기 찾은 학교 “어서 와~ 보고 싶었어”

글 이순이 편집장

66  
24시간 비상 대응체제  
아래 학생과 학부모들이  
두려움 없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9

1 \_ 서울흥인초등학교 교문에 걸린 현수막  
2 \_ 열화상카메라로 체온 측정



# 서울흥인초등학교는 지난 5월 27일 2학년 50여 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하고 있다. 수도권 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학교는 보다 철저하게 등교수업을 준비해왔다. 김경미 교장은 “1·3·6학년과 2·4·5학년으로 나눠 일주일에 2~3회 순환 등교하고 있다.”라며 “등교는 교실 배치를 고려해 학생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교직원이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라고 설명한다.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은 2m 이상 거리를 두며 현관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체온을 측정한 후 정해진 동선을 따라 각 교실로 이동한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손소독을 하고 교실로 입실해 하루를 시작한다. 2학년의 학급당 인원은 17명으로 학생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상은 최대한 벌려놓았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개인사물함은 학생들의 접촉을 우려해 당분간 사용을 중지하기로 했다. 대신 학교에서 마련한 개인별 종이상자를 비치해 사물함으로 사용하고 있다. 학생들의 이동이 잦은 점심시간, 학교는 급식실에 투명칸막이를 설치했으며 학생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학년별로 시간을 달리해 운영하고 있다.

### 코로나19 이후 첫 등교수업 이뤄져

코로나19 사태로 등교가 4차례 연기된 끝에 지난 5월 20일 드디어 고3 학생을 시작으로, 5월 27일



3 \_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책상에 앉아 있다. 책상 옆 종이상자는 개인사물함

1단계(고2, 중3, 초1~2, 유치원) 등교, 6월 3일 2단계(고1, 중2, 초3~4) 등교, 6월 8일 3단계(중1, 초5~6) 등교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종식과 백신 개발 등 일정을 예상할 수 없는 현실에서 등교수업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보다는 생활 속 거리두기 내에서 학습과 방역이 조화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학교 현장 또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학교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개시 전부터 학교 내 방역수칙과 코로나19 발생 시 대처요령을 담은 방역 가이드라인(매뉴얼)을 마련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해 왔다. 특히 고3 등교수업 첫날(5.20), 인천과 경기 안성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한때 학교 방역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 및 방역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 등교중지 및 귀가조치를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이에 인천 66개교, 안성 9개교, 대구 1개교가 등교중지 되었으나, 이후 안정화되면서 등교 재개가 이뤄졌다. 5월 27일에는 등교수업이 예정되어 있던 경기 부천 지역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부천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시 전환하였으며, 고3은 등교수업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초1~2, 중3, 고2, 특수학교는 등교수업일을 조정하여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 명의 확진자도 생기지 않도록 모든 교육관계자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철저한 대책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비상대응체계를 통해서 신속하게 차단하고 대응해서 빠르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과대학교, 과밀학급 밀집도를 낮춰라

등교수업에 대비해 교육당국은 방역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학교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그동안 과대학교, 과밀학급의 경우, 학생간 거리두기가 쉽지 않다는 학교현장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 상황. 이에 대안으로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오전/오후반 운영 등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학사운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교육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데 따라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유·초·중·특수학교 등교 인원 기준을 기존 ‘전체 인원의 3분의 2이하’에서 ‘3분의 1’로 강화하였다. 이에 해당 지역 학교는 교실 내에서 학생 간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거나 급식과 이동 중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 3학년의 경우 매일 등교하며, 고 1~2학년은 학년·학급별 격주 등교를 권장하고 있다. 초·중학생은 주 1회 이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학년·학급별 순환 등교, 학급 분반 운영이 가능하다. 유치원생은 원격·등교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한 학년·학급별 격주제/격일제 등교, 학급단위로 오전/오후반 운영,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수업시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하게 학사를 운영한다.

실습이 많은 직업계고의 경우, 3학년은 등교를 통해 부족한 실습을 집중적으로 이수하고, 1~2학년은 실습수업을 중심으로 특정요일에 등교하여 밀집도를 분산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매일 학생 건강상태 체크, 학교 방역 철저히**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소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먼저, 등교 시작 1주 전부터는 ‘자기건강상태 일일 점검시스템’을 가동하여 매일 등교 전 건강상태 및 해외 여행력, 동거가족 자가격리 여부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한 후 의심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등교가 중지된다.

학생이 학교에 도착하면 운동장 또는 건물 입구에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의심 증상 학생은 특별관

찰실로 이동한 후 선별진료소로 이송되어 진료 및 필요 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 은 학교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시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수업 등 교육활동에서 개인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책상 재배치, 물품 공동사용 금지, 급식시간 거리두기 등을 실시한다. 교실별로 소독제를 비치하여 손소독을 일상화하고 알코올티슈를 활용해 책상면·문 손잡이 등 접촉이 많은 시설물 소독도 실시한다.

학교 급식은 간편식 또는 대체식으로 제공하고 점차 일반 급식으로 전환한다. 식당으로 이동하기 전에 학생들의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급식실은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한쪽 방향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학원 등 방역 점검 실시 강화**

한편, 교육부는 학원을 통한 학생 감염사례가 늘고

4 \_ 4인용 탁자를 1명씩 한 방향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였다.



학원 강사의 확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학원을 통한 학교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0년 2~4월(3개월)간 학원을 통한 학생감염은 7명이었으나 5월에는 한 달간 20명의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학원 강사·직원의 경우, 2020년 3~4월(2개월)간 월평균 1.5명이었던 것이 5월에는 7명으로 늘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에게 최소 2주간(5.29~6.14) 학원 이용 자제를 요청하였으며, 시·도 교육(지원)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학원 등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부득이 등원한 경우에는 반드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학원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학원은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하며,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 전후 실내소독을 해야 한다. 강의실 내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공용차량



5 \_ 고3 등교가 이뤄지던 5월 2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덕성여고에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다.

운행 시 운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차량 운행을 전후하여 소독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된 등교에 신속한 조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누구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헤쳐나가고 있다.”라며 “24시간 비상 대응체제 아래 학생과 학부모들이 두려움 없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②

※ 본 원고는 6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표] 학교 방역 대응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된 내용
• 학교에서 유증상자 발견 시 조치	• 보호자에게 연락 후 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②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신고하여 지원을 받음 ※ '20.05.26. 공문시행
• 등교수업일 조정	• (개별학교) 시도교육청이 지역 보건당국과 협의 후 결정하고 교육부 보고 • (지역차원) 교육부·교육청·보건당국과 협의 후 결정
• 에어컨 사용기준	•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쉬는 시간마다 환기
• 다중이용시설 이용	• 하교 후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금지
• 격리 해제 후 학교 복귀	• 격리 해제 후 바로 학교 복귀 ※ 보건당국 지침 변경 반영
•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였으나 진단검사를 하지 않은 학생 조치	•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후 호전되면 등교·출근
• 참고자료	• 학생 마스크 착용 수칙 • 등교수업 이후 학생 심리지원 방안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 지방직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 중앙취업지원센터 개소

글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학생의 안전 강화- 현장실습생 안전조끼 보급
- 고졸취업 선도기업에 최대 10개 인센티브 패키지 제공
-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고졸취업 어려움 선제적 대응

교육부는 지난 5월 22일에 열린 제3회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 발굴, 기업참여 확대, 포스트 코로나19 대응력 강화 등의 계획을 담은 「2020 직업

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이 이뤄지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실습 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취업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졸 채용까지 충격이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병무청, 특허청, 조달청 등 수차례 관계부처 회의와 20여 차례의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고졸 취업을 한층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에는 총 41개의 신규 및 보완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안전을  
강화한다.

### 현장실습 안전조끼 디자인(안)



미래 기술인재, Learning by doing for future 라는 글귀로 현장실습생을 나타냄 (세그루패션디자인고 윤미현 선생님 디자인)

학교에서부터 안전한 실습환경에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2020.6)하고, 올 연말까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교육청 합동으로 실습실 안전점검(연 2회)을 실시하고, 산업안전 교과서 개발 및 교육과정 도입도 추진한다.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실습실 안전보건 개선 과제’를 통해 학생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2020.3)하여 올해 10월부터는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장실습생의 멘토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9억 원→205억 원)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 조치와 지도가 한층 더 강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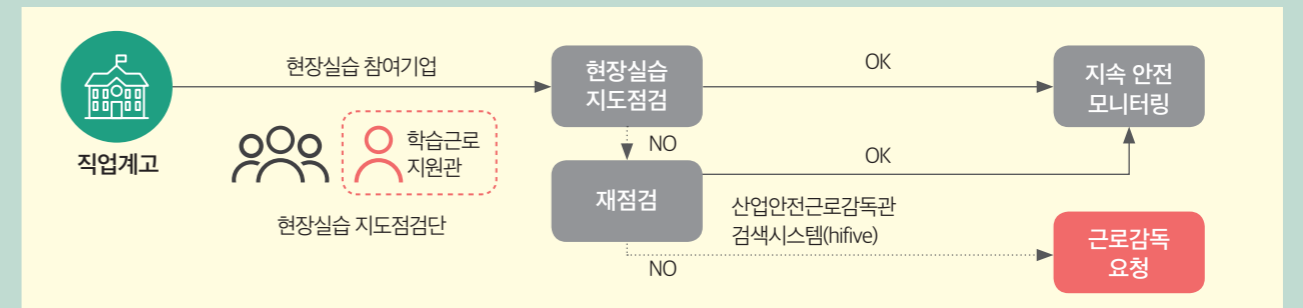
또한, 올해부터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조끼를 보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유도해 기업관계자의 관심과 지원을 높여 학생 안전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밖에도 고용부와 협업하여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직업계고 교사를 대상으로 1교 1명 이상의 ‘학습근로지원관’을 신규로 지정하여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의 협업을 통해 현장실습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그림2>.

[그림1]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현장 정착을 위한 후속정책 추진 경과 등



[그림2] 학습근로지원관-산업안전근로감독관 협업체제 흐름도



## 둘째, 학생들을 위한 관찮은 일자리 발굴에 정부가 직접 나선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를 추진한다. 현재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행정직과 기술직 모두를 선발하고 있으나, 지방직의 경우에는 기술직만 선발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 공공기관의 고졸취업에 대해 고졸적합직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현황을 보면, 2017년 1,799명, 2018년 2,854명이며, 2019년 3,384명(잠정치)으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을 확보(2019.12., 국고 18억 원)한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를 개소(2020.6. 예정)하여 관찮은 일자리 발굴에 정부가 직접 앞장선다. 중앙취업지원센터는 부처-지자체-교육청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고졸취업을 지원하며, 올해에는 부처 간 인사교류, 파견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고 이후에는 협업정원을 확보해 관계부처 인력을 지원받아 체계적으로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셋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개선하고 확대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청이 지자체, 지방노동청과 연계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선도기업에는 중기부, 고용부, 금융위, 은행연합회, 조달청과 함께 최대 10개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부여한다<그림3>. 2019년 현재 15,000개의 선도기업이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매년 5,000개씩 늘려 2022년까지 30,000개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 중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추천된 우수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보증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고용부의 클린사업(사업장당 약 2천만 원)과 융자사업(기업당 약 10억 원)을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우선 지원해 안전한 기업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고졸자를 위한 별도 쿼터(만 18~23세, 20% 이상)를 두어 고졸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1~5인 미만의 작은 기업도 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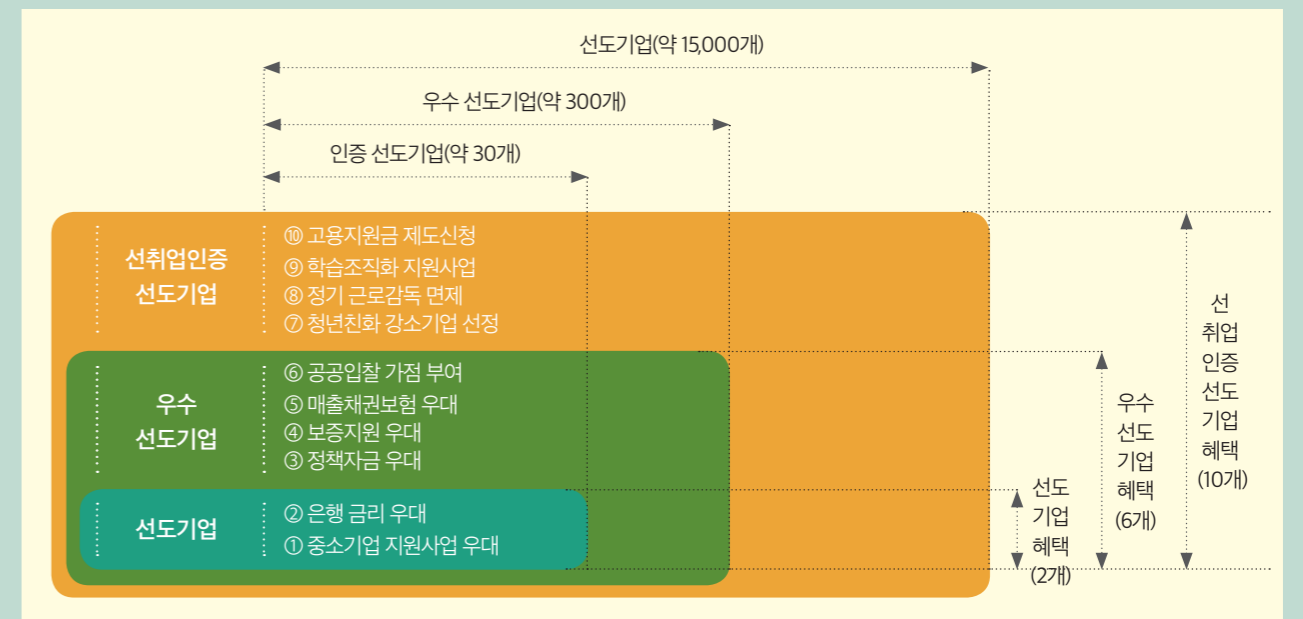
## 넷째, 코로나19 이후 고졸취업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실습 부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용부, 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해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기능사 시험을 오는 7월경 추가로 개설(예정)키로 하였다. 아울러 현장실습 학점제와 선도기업에 대한 현장실습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4주→1~2주)해 기업의 고졸채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직업계고(208개교)는 여름방학 기간 현장실습을 수업일수로 인정해 취업지원(10.5→10.20)에 따른 취업처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그밖에도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플랫폼을 통해 온·오프라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무교육 특성상 원격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VR, AR 콘텐츠로 개발하여 원격실습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들 정책을 국정과제 수준으로 관리하고 고졸취업 관계부처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마련한 소중한 정책들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②

[그림3]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센티브 지도



코로나19에도 힘차게!  
고졸취업, 걱정하지 마세요!

# 든든한 고졸취업 지원방안 7

### 직업계고 교육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 1 직업계고 학생 대상  
기능사 시험 별도 개설  
제3회 수시 검정 응시 가능(7월)
- 2 원격수업 대비, 전문교과 공통 학습내용은  
VR-AR 콘텐츠를 개발하여  
원격실습수업 지원

### 현장실습 운영이 유연해집니다.

- 3 현장실습 학점제 운영  
여름방학 현장실습을  
수업일수로 인정
- 4 선도기업  
현장실습 기간 단축  
4주 → 1~2주
- 5 블렌디드  
현장실습 운영  
온라인 콘텐츠 활용 현장실습 / 산업체 오프라인 실습

### 취업 준비, 집중 지원합니다.

- 6 현장실습과 취업지원을 위한  
인건비 상반기 중 집중 지원
- 7 기업 발굴 중점 기간 운영



## ‘고졸인재 일자리 콘서트’ 비대면 개최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다. 그럼에도 기업이 구직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변함없이 열정과 실력, 목표의식이다. 이는 지난 6월 3일 일산 컨텍스에서 개최된 ‘2020 고졸인재 일자리 콘서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대기업, 금융권, 공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박람회 참가한 인사담당자들은 고졸인재들에게 한 목소리로 자기만의 역량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글 이경화 명예기자



1. 지난 6월 3일 일산 컨텍스에서 개최된 ‘2020 고졸인재 일자리 콘서트’는 온라인 중계를 통해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유은혜 교육부장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고졸 취업자들에게 영상으로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아쉽지만, 여러분의 도전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라며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 코로나19로 무관중 개막, 키워드는 여전히 ‘열정과 실력’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고졸인재 일자리 콘서트’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3월 예정이었던 행사를 6월로 연기했다. 그마저도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던 토크콘서트 및 강연, 진로 컨설팅 토크쇼, 채용설명회, 현장면접 부스, 특성화고 홍보는 온라인 화상 면접과 온라인 중계 인터뷰로 대신했다. 그럼에도 한 때 동시접속 최대 2만 4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언택트(untact) 채용 박람회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이날 온라인중계는 취업특강과 토크콘서트, 진로 컨설팅 토크쇼, 랜선 박람회장 투어로 나뉘어 세 개 채널에서 진행됐다.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해외취업과 블라인드 채용 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김형준 대리는 “월드잡(www.worldjob.or.kr) 사이트를 활용하면 해외정착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 후 이력서를 올려놓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했다. 또, 천지영 대리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활용한 똑똑한 취업준비 방법에 대해 강연했다.





채용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직무역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블라인드 채용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기업은 구직자에게 직무능력에 대한 설명을 한층 더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문화 검색채용서비스업체인 더팁스 최무희 이사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취업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기업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강연했다. 이미 포화된 성공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성장 기업을 찾아내고 그에 맞춰 자신의 업무 능력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밀레니얼 세대는 취미, 성과, 가치가 확고한데 그 분야를 취업에 활용할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고 일깨웠다. 그와 더불어 인프런(www.inflern.com), 스킬샵(www.skillsharp.co.kr) 등 온라인 취업 공간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SK뉴스쿨 하원봉 팀장은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법”이라며 학력보다 개인의 역량과 노력이 중요한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선태 본부장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취업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등으로 산업의 경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미래에는 대인교류능력, 비예측적 문제해결 능력 등 컴퓨터보다 인간의 우위가 예상되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생각의 지도를 바꿀 수 있어야 성공한다고 덧붙이며 자기만의 인생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새벽 2시 설악산 울산 바위 산책길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면접관의 질문에 꿈에서 깨어나겠다는 대답으로 관점을 전환한 면접자만이 통과했다는 예를 들었다.

**온라인 생중계·화상면접 진행**

토크콘서트에서는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포스코, 박준헤어 등 박람회 참가 기업들이 각 사의 무료교육 지원, 취업알선에 대해 안내했다. 기업 관계자들의 설명에 참가자들의 관심은 댓글 창으로 이어졌다. 또 독일식 일·학습 병행 ‘아우스빌동’ 프로그램과 다양한 기술연수생 지원 방안에 대한 궁금증도 끊이지 않았다.

특성화고 학생 및 취업 준비생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곳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로 컨설팅 토크쇼’였다. 실시간 채팅창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포트폴리오 구성, 자격증 취득에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다. 컨설팅 멘토로 나선 김준배 교사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교의 담당 선생님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며 “지원동기와 강점을 연계해 입사 포부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안혜정 교사는 “포트폴리오의 경우 적극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라며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참가자인 신일비즈니스고등학교 3학년 윤희주 학생은 댓글창을 통해 “선생님들의 취업 진로 상담 덕분에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감사 인사를 남겼다.

랜선 박람회장 투어에서는 한국산림과학고, 경기경영고, 미림여자정보고, 신일비즈니스고 등 특성화고 소개 및 한국폴리텍대학, 스마트속기협회, 인사혁신처, 신한은행, 삼성중공업, 엔카닷컴 등 박람회 참가 기업과 공기업 부스 탐방이 이어졌다. 참여 교사들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지 못해 아쉽지만, 온라인 상에서 그동안 준비한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전했다. 신한은행 김현준 차장은 “디지털 세상에 대한 변화를 공부해 오면 좋겠다.”라며 “능력이 뛰어난 고졸인재들을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잘 준비해서 후배들에게 길을 넓혀 주기를 바란다.”라고 응원했다.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화상면접이 진행됐다. 대구에서 화상면접을 신청한 고3 이채은 학생은 “면접관과 1대1로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라며 “직접 면접을 보러 가기 힘들었을 텐데 온라인으로 볼 수 있어서 편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㉞

2\_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화상면접이 진행됐다.

34\_ 랜선 박람회장 투어를 통해 직업계고와 참가 기업들의 부스가 소개됐다.



서울시교육청\_교권보호 정책

## 교원안심공제·안심번호 서비스 등 지원

교권이 보장된 교실 속에서 올바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교권보호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글 양지선 기자



66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될 때  
올바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99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뒀던 지난 5월 14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에는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2인1조 경호인력 배치)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법률 전문가 현장 투입 및 사안 조정)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상해 치료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 △교원 소송비 지원(개인당 최대 550만 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사고당 최대 2억 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는 더 많은 교원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혜택의 폭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배상책임 지원이나 소송비·치료비 지원 등은 작년에도 제공됐던 서비스였지만, 보상액이 적거나 지원 제한 조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았다.

올해부터는 교원에게 일정 부분 과실치사상의 책임이 있더라도 배상금을 지원한다. 또, 학교당 최대 500만 원의 소송비를 지원했던 것을 교사 1인당 5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늘리면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심리적 소진 교원에게도 상담치료 지원

더불어 직접적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원 외에 심리적 소진 교원에게도 종합심리검사를 포함한 상담을 지원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스트레스가 누적돼 회복이 필요한 교원이라면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한정현 장학사는 “학교에서 인정하는 교권침해 사안 이외에도 교사들은 수시로 교권침해 환경에 노출되지만, 대부분은 혼자 감내하려 한다.”라며 “이런 소진 교원들에게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번아웃(Burnout·탈진)을 예방하고 대응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인 ‘공감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지원받은 교원 71명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김지은 공감센터 상담사는 “교사들이 처음에 센터를 찾아오기까지 많이 망설이지만, 상담을 진행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을 볼 용기가 난다’, ‘압박감을 내려놓고 편안해질 수 있었다.’라는 소감을 남긴다.”라고 전했다.

공감센터는 지난해 시범운영한 ‘학교로 찾아가는 집단상담’을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할 예정

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춘 집단상담은 교원들 간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올해는 학교별 사안에 맞춰서 응급지원 강의를 하고, 교사별로 개인 상담을 연계하거나 그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안심번호 서비스로 일과시간 이후 사생활 보호**

교원안심공제 서비스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원 업무용 안심번호 사업도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추진했던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사업과 이어지는 것으로, 안심번호 앱을 설치해 통화 가능 시간을 정해놓으면 일과시간 이후 전화벨이 울리지 않도록 설정돼 간편하게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통화연결음(안내 멘트) 설정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된다.

교원들이 꼽는 가장 큰 업무 스트레스 중 하나가 바로 근무시간 이후 개인 연락처로 오는 학생·학부모 민원이다. 이에 지난해 2학기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사립 유·초·중·고 중 70개교에는 업무용 휴대전화가 지원됐다. 올해는 200여 개 신청학교 중 90개교에 휴대전화를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에는 안심번호 앱을 활용하도록 했다.

한정현 장학사는 “안심번호 서비스는 교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그 이전에 먼저 교사의 사생활이 존중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1학년도에는 학교 예산 편성 지침에 안심번호 운영을 포함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업 예산을 서울시 모든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노출·사이버상 교권침해 등 대책 준비**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교원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의견을 듣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소진 교원에 대한 지원과 안심번호 서비스 등 현장과 밀착된 지원정책이 나올 수 있었다.

특히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나 원격수업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상에서 교원의 사생활 침해도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전문연구기관에 해당 문제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위탁해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12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사회적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 반면, 상대적으로 교권은 그만큼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시각도 존재했다.

한 장학사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될 때 올바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라며 “학생인권도 존중하면서, 교권보호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정책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②



EDUCATION  
NEWS

01 VR로 과학 실험하고 AI로 ‘수포자’ 막는다

- ① 교육부,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 발표
- ② 지능정보사회 이끌어갈 과학·수학·정보 핵심 인재양성

교육부는 지난 5월 27일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4)’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마련되었다.

그동안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은 각각 시기를 달리 하여 독립적으로 수립하여 추진됐으나, 올해부터는 교과 사이의 긴밀한 연결과 융합을 바탕으로 4개 영역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동시에 수립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의 연계 속에서 상호간의 상승효과를 거두고자 했다.

교육부는 이번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인공지능(AI), 가상·증강 현실(VR·AR) 등 최첨단 에듀테크 기술을 교육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과학실’을 2024년까지 모든 학교에 구축하여, 발전하는 첨단

과학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학 학습 지원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학습 진단 및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개념을 시각화 자료 및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가상·증강현실(VR, AR) 등 최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한 다감각적 수업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미래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갈 과학·수학·정보 핵심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들도 담겨 있다.

신 과학기술 분야 영재의 조기 발굴 및 성장을 위해 초·중학교(영재학급, 영재교육원)와 고등학교(영재학교·과학고) 및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사이의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하고,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취지에 따른 새로운 입학 전형의 안착을 지원한다. 모든 학생이 정보·인공지능(AI)의 기본적인 역량을 기르고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된 다양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시간도 확대한다.



EDUCATION  
NEWS

02 월드클래스 중견기업서 고졸인재 채용한다

- 21개 월드클래스 기업, 고졸인재 155명 채용
- 교육부·산업부,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협력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는 지난 5월 26일 충남 아산 하나마이크론에서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는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과 성장 의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한 협회로, 현재 286개사가 회원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졸인재와 우수기업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하였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월드클래스 기업 중 21개사가 155명의 고졸인재를 채용한다. 교육부와 산업부는 월드클래스 기업을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일괄 인정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포상·홍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월드클래스 기업에 필요한 인재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 교육부는 사·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체제를 마련한다.

아울러 월드클래스 기업과 학교는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체험 및 견학기회 제공, 전문가 인력풀 활용, 기업 내 실습시설이나 학교 내 각종 시설 등의 상호 이용에 협력한다.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하나마이크론은 2012년에 월드클래스300 기업으로 선정된 반도체 패키징 전문기업으로, 정부와 민간기업 간 협력을 통해 고졸인재 채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나마이크론은 지난 2월 산업부에 반도체 공정직무에 적합한 고졸인재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산업부·충남교육청이 협력하여 기초직무역량 중심의 방과후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하나마이크론에서 현장실습을 거쳐 조기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였다.

한편, 이번 협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충청남도·충청남도교육청·하나마이크론의 3자 간 업무협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03 학생 스스로 재난위험요소 찾고, 대응역량 키운다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프로그램 전국 103개교 실시
- 4주차 프로그램을 통해 재난대응역량 함양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103개교를 대상으로 2020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2019년 대비 57개교가 추가(특수학교 8개교 포함)된 103개교가 훈련을 진행한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2016년부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프로그램으로, 교사와 학생이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획부터 실행까지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훈련은 사전준비 및 기획부터 현장훈련까지 총 4주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개별 학교는 11월까지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각 학교에서 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사전 모임을 가질 때에는 영상회의·전자우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모의·현장훈련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안내 지침' 등에 따라 참여 규모나 일정 등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훈련 안내서와 현장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학교별로 2명의 안전교육 강사를 배정하여 훈련 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04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20개교 선정

- AI 기반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융합 교육과정 개설
- 2년간 연 10억 지원, 대학·지역 간 상생 기대

교육부는 2020년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이하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 20개교를 신규로 선정했다.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다수의 학과가 참여하여 융합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고 혁신적인 교육 방법과 환경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이 제시한 교육과정 혁신 계획의 구체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대학의 특성과 여건 및 교육과정과 신산업 분야 간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평가했다.

사업을 신청한 총 61개 대학 중 이번에 선정된 20개교는 앞으로 2년간(2020~2021년) 연 10억 원을 지원받으며, 교육과정과 교육의 방법 및 환경 혁신을 통해 유망 신산업 분야(스마트 공장, 스마트 모빌리티 등)의 미래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 사업)' 참여 대학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추진되었으며, 올해에는 LINC+ 미참여 대학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김일수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개편된 혁신 교육과정이 대학·지역 간의 상생과 각각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표]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선정대학 명단

연번	대학명	권역	연번	대학명	권역
1	건양대	충청권	11	숙명여대	수도권
2	경운대	대경강원권	12	순천대	호남제주권
3	공주대	충청권	13	순천향대	충청권
4	금오공대	대경강원권	14	송실대	수도권
5	대전대	충청권	15	연세대(서울)	수도권
6	동국대(경주)	대경강원권	16	우송대	충청권
7	동명대	동남권	17	원광대	호남제주권
8	동신대	호남제주권	18	청주대	충청권
9	부산대	동남권	19	한국항공대	수도권
10	서울시립대	수도권	20	한남대	충청권

# 청소년 여가활동 1위,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검색’

글 박근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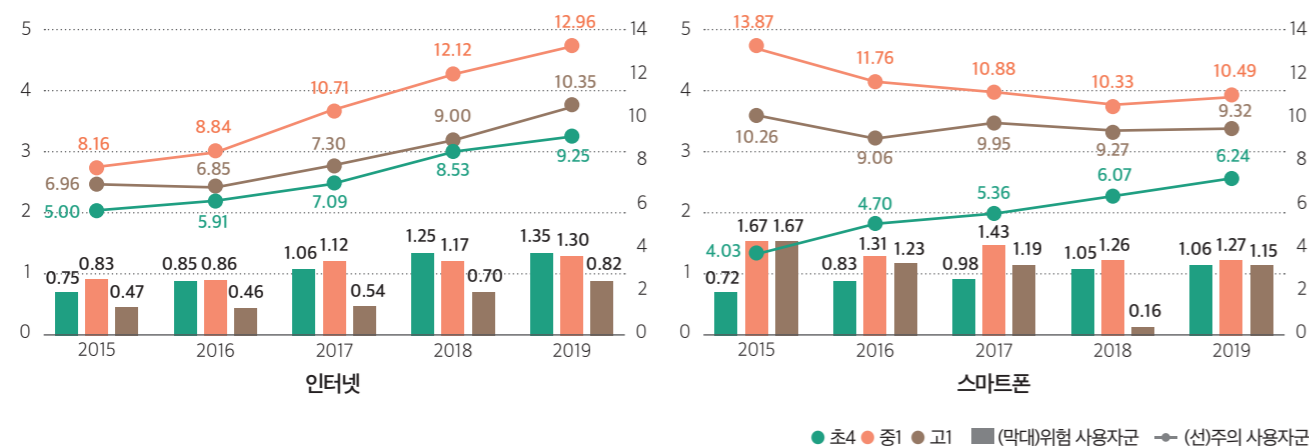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생들이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관심과 염려도 커지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2020 청소년 통계(통계청·여성가족부)에 의하면 2019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은 ‘관광(58.5%)’이었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검색’(주중 74.4%)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 자라나고 있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개인적 또는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 스마트기기로부터 일상의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2020년 조사는 오프라인 개학이 이

루어진 시점 이후로 연기된 상태이다. 를 통해 학교급별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학생을 선별하여 맞춤형 상담·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 조사에서 ‘위험 사용자군’이란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겪고, 금단 현상을 보여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을 말하며, ‘주의 사용자군’이란 “사용시간이 점점 늘어나지만,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중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인터넷 주의 사용자군은 중1 학생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12.96%)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고1학년(10.35%)과 초4학년(9.25%) 순을 나타냈다. 하지만 위험 사용자군의 경우 2018년 이후 초등학교 단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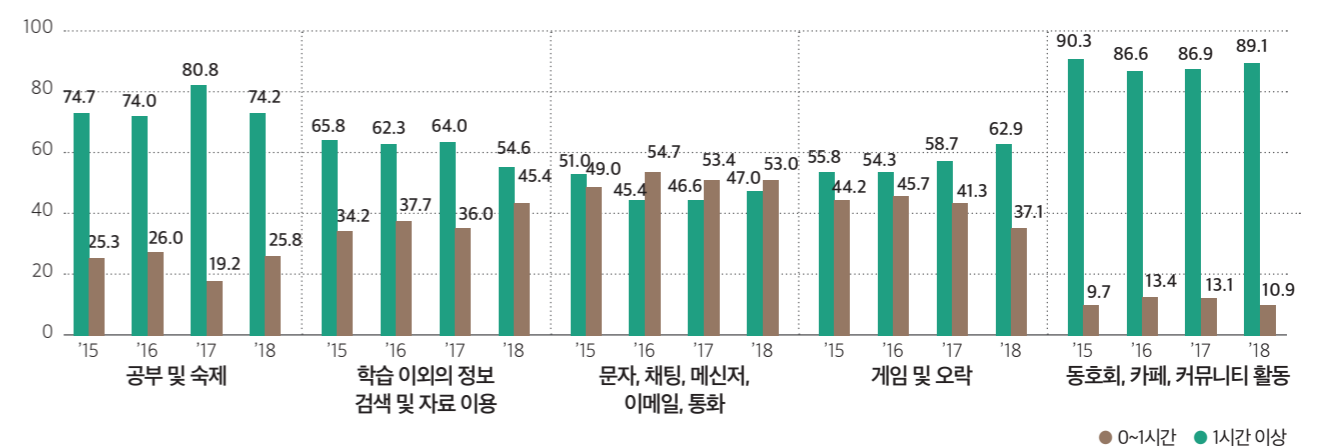
을 보였으며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졌다. 인터넷의 경우 위험 사용자군과 주의 사용자군의 비율이 최근 5년간 모든 학교급에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스마트폰의 경우 초4학년을 제외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정도에 변화가 있을까? 2013년 전국의 초5학년생 7,287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한국교육종단연구]**는 대상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한 2015년부터 컴퓨터와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 시간을 목적별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대상 학생들이 고등학

교에 진학한 시기이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스마트 미디어 시간활용의 변화 유무를 알아볼 수 있다. <그림 2>에 제시된 결과에 의하면 ‘공부 및 숙제’ 그리고 ‘문자, 채팅, 통화’ 등의 목적의 경우,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매일 한 시간 미만 컴퓨터/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이용’ 목적의 경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활용 시간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반대로 ‘동호회, 커뮤니티 활동’이나 ‘게임 및 오락’을 위한 컴퓨터, 스마트 미디어의 활용 시간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㉔

[그림1] 학년별 인터넷(左)·스마트폰(右) 위험사용자 및 주의사용자 비율(2015~2019년)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5~2019년



[그림2] 활용 목적에 따른 컴퓨터·스마트 미디어 활용시간(2015~2018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종단연구]



# 집에서 병아리를 부화한 삼남매

글 김정희 광주학운중·학운초 학부모



친구 없이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4달 동안 아이들은 새 생명을  
임태하고, 키우는 생명의 기적을  
보았고, 돌보고 책임지는  
공부를 한 것이다.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3학년 삼남매의 하루가 부산하고 바쁘다. 우리 부부가 모두 출근하면 삼남매가 남아서 원격 수업을 하고,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손잡고 뒷동산 산책을 가기도 간다. 게다가 집에 있는 동안 직접 병아리를 부화해서 온 집안이 시끄럽지만 즐겁다. 늘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들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병아리를 부화해서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배운 것이다.

시작은 큰덕 시골에서 가져온 유정란이었다. 5년 전쯤 만이 시현이가 병아리를 부화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주문했던 종이상자와 온도조절 장치를 조립하여 만든 부화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부화기에 계란 4개를 앉히고 삼남매는 날마다 들여다보며 손꼽아 3주를 기다렸지만, 병아리는 부화하지 않았다. 삼남매의 실망은 이만저만 아니었다. 특히, 부화를 주도하며 동생들을 설득한 팀장 시현이의 실망이 특히 컸다.

그러나 시현이는 동생들 앞에서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시현이를 팀장으로 2차 병아리 부화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병아리를 부화하기 위해서는 38도 가량의 온도를 유지하고, 하루 세 번 계란 굴려주기가 핵심이란 걸 다시 공부했다. 부화 기간 3주(21일)간 온도를 계속 유지해주고, 병아리가 알을 깨기 위해 자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계란 굴리기는 19일이 지나면 멈춰야 한다는 것도 새로 배웠다. 유기농 매장에서 유정란 10개를 사서 다시 앉혔다. 삼남매는 각기 자기 계란에 이름을 짓고 껍데기에 적었다. 띠리, 롤리, 아롱이….

아침잠이 없는 시현이는 아침, 하연이는 오후, 시윤이는 밤에 각각 계란 굴리기 당번을 했다. 막내 하연이가 깜빡하거나 시윤이가 일찍 잠들면 여지없이 시현이의 지청구를 들어야 했고, 동생들은 새 생명을 보기 위해 달계 받아들였다.

가족과 주말 하룻밤 여행을 갔던 날이 바로 부화 예정일이었다. 설렘과 긴장감으로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안은 온통 삐약이 소리로 가득했다. 2마리였다.



1

1 \_ 삼남매가 키워낸 병아리  
2 \_ 병아리 부화 프로젝트를 성공한 첫째 시현이, 둘째 시윤이, 막내 하연이



2

한 녀석은 간밤에, 한 녀석은 아직 깃털이 젖어 있는 것으로 보아 1-2시간 전에 까고 나온 것으로 보였다. 생명의 탄생은 기적이었다. 아이들은 뛰며 부둥켜안고 좋아했다. 우리 부부도 같이 야단법석의 날이었다. 그런데 가장 기다렸던 하연이의 롤리가 태어나지 않아 하연이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밤에 잠자리에서 하연이는 “병아리, 병아리” 하면서 잠꼬대를 했다. 엄마 아빠가 보기에 하연이가 잔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하고 나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빠, 롤리가 금이 가기 시작했어. 알에서 삐약삐약 소리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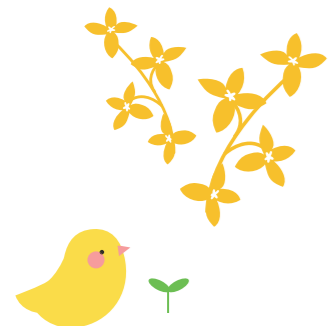
하연이의 탄성이 터졌다. 낙담하던 하연이의 얼굴에 웃음기가 돌았다. 퇴근해서 돌아온 나는 아직도 알에서 깨 나오지 못한 롤리를 위해 하연이가 젓가락으로 툭툭 두드리주며 줄탁동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0시간 가까이 툭툭거리며 늦게 깨어난 롤리는 다른 놈보다 힘이 없었다. 그래도 아이들이 각각 이름 지어준 병아리들이 차례로 깨어나 정말 다행이었다.

전날 나온 두 녀석은 당찬 목소리와 발걸음으로 아이들을 신나게 했으나, 롤리는 아직 털도 마르지 않아 온 가족을 신경 쓰이게 했다. 부화기 상자에는 온도조절 및 식수 용도로 접시에 물을 떠 놓는데, 온 가족이 잠든 새벽에 아내의 목소리가 황급히 들렸다. 아뵐싸, 롤리가 죽었다. 그 작은 접시 물에 병아리가 빠져 죽은 것이다. 아직 털이 털 마르고 힘이 없던 녀석이 목이 말라 접시에 가서 목을 축이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부리를 접시에 박고 익사해 버린 것이다.

슬프고 안쓰러웠지만, 실망할 하연이를 생각하니 더욱 망연자실하였다. 밤새 우리 부부는 잠을 못 자고 뒤척였는데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니 아직 부화되지 않아 포기하고 방치했던 달걀에서 3마리의 병아리가 더 깨어난 것이었다. 그 3-4시간 사이에 기적처럼 저희들끼리 혼자 알을 깨고 나온 것이다.

먼저 간 롤리가 잔하고 미안했지만, 우리 부부는 롤리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두 녀석이 새로 태어났다고 했더니 하연이는 그렇게 믿었다. 물론 시현이와 시윤이는 달걀이 하나 없어졌다고 고개를 가웃거렸지만, 아빠가 실수로 깨뜨렸다고 하니 또한 믿어 주었다.

지금은 3남매가 매일 병아리들에 푹 빠져서 공부하기가 바쁘게 병아리 뒤를 쫓돌 따라다니며 돌보고 있다. 큰 닭으로 키우겠다는 아이들의 포부가 대단하다. 친구 없이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4달 동안 아이들은 새 생명을 임태하고, 키우는 생명의 기적을 보았고, 돌보고 책임지는 공부를 한 것이다. ②



# 포스트 코로나시대, 공동체 의식과 개인주의

글 김석수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

66  
공동체  
의식은 강한  
연대의 힘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집단이기주의로  
이어지기도  
한다.

99

POST CORONA

최첨단 과학 기술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어려움은 여전히 극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전(全)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는 세계인의 삶을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이와중에도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코로나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아픔이기도 하지만, 또한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늘 서구인의 삶과 문화에 나름 부러움을 갖고 있기도 했다. 그들의 삶이 합리적으로 돌아가며, 또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잘 보장되어있는, 게다가 복지시설을 잘 갖춘 안정된 사회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왔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들처럼 발전시켜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서구 국가들의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선망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 속에 축적된 공동체 의식과 지금의 발전된 인터넷 문화를 통해 우리가 이번 사태를 대처해온 모습은 서구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기도 하다. 오래도록 개인주의에 익숙한 서구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봉쇄 조치와 마스크 착용 요구에 대해서 시민들이 협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형태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세계를 주도해왔던 미국이 이번 사태에서 무려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며 미국과 유럽에 대한 우리의 선망 의식도 많이 희석되고 있다.

### 이제 우리도 서구 추수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일찍이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백색중심주의를 비판하였듯이, 우리 역시 이런 비판적 의식에 기초하여 서양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의식에서 깨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전통 속에 자리해온 공동체 의식이 천민 의식이 아님을, 우리의 첨단 인터넷 문화가 인권 유린의 문화가 아니라 새로운 소통과 연대의 문화임을 우리 스스로도 자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는 이를 계기로 우리의 전통과 현대 문화에 대해 더 큰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서구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를 넘어 세계의 주역으로 우리를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의 전통과 현대가 가진 장점에만 주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우리의 전통 속에 자리해온 공동체 의식이 이번처럼 강한 연대의 힘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집단이기주의로 이어지거나 인권을 유린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이 서로에 대해 배제나 구속을 낳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문화에서 아바타들을 통해서 출현하기도 한다. 사실 유사자유주의와 유사공동체주의가 우리 속에서 완전히 극복된 것이 아니다. 온라인 문화에서도 이들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거나 때로는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전통과 현대, 공동체 의식과 인터넷 문화가 서로 상생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서로 배타적인 소모적 관계로 전락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익명적이고 간접적인 관계가 증가하면서, 또한 속도에 떠밀려 피상적으로 살아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간접화와 추상화가 심해지면 서로 고립된 공간에서 자기만의 삶에 매몰될 수도 있다.



가는 관계가 심해지면서, 우리는 과거보다 우울과 혐오를 더 심하게 겪고 있다. 우리에게 찾아온 코로나는 이 같은 상황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사회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이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는 사람들 사이의 간접적 만남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확산될 것이며, 우리들이 거주하는 공간도 훨씬 더 추상화될 것이다. 관계의 간접화와 공간의 추상화는 몸을 통해 서로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구체성을 상실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런 간접화와 추상화가 심해지면 서로 고립된 공간에서 자기만의 삶에 매몰될 수도 있다. 물론 이번 코로나가 그동안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가족의 소중함을 뒤로 해야 했던 우리의 문화에 가족을 되찾게 해주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도 저마다 자기 공간에서 인터넷에 묶인 채 살아간다면, 가정에 파고든 전자문화는 가족 조차 해체시킬 수도 있다.

코로나의 근본적 해결은 온라인에 있지는 않다. 코로나가 존재하는 오프라인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온라인으로 달려간다고 해서 이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구생태를 고민하며 오프라인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일구어낼 때만 우리의 온라인의 미래도 희망적일 것이다. ㉠

# 오랜만의 등교 개학, 아이들 지도 어떡하죠?

글 김서규 경기대 교육상담학과 겸임교수



## 교사의 질문

온라인 개학 이후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원격으로만 아이들을 만나거나, 그마저도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등교 개학을 앞두고 뒤늦게 아이들을 대면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아이들과 빨리 친밀감을 형성하고 학교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을까요?

## ANSWER

선생님! 오랜 기다림 끝에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반가움이 더 많은 대면 개학을 하게 됐네요. 특히 학교 생활 경험이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등교 개학 이후 지도 방법을 몇 가지 제안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념

### 친밀감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반비례인가?

아이들은 등교할 때부터 바닥에 붙은 신발 자국 안내표지를 따라 서로 거리를 두고 한 줄로 들어오게 되죠. 교실 책상에는 칸막이로 설치되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서로 얼굴이며 표정조차 알 수 없어요. 게다가 서로 모여서 놀이를 하기는커녕 최대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도록 권장되는데, 어떻게 아이들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에 대해 개념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한 명 한 명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더 잘해줄 수 있는 창의적인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K-방역 기준을 세워서 전 세계를 선도하듯, 이번에는 K-교육 기준을 세워 보아요!

## 01 자기를 알리는 방식

아이들은 마스크를 끼고 서로 거리를 두고 있으므로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교하는 날 부모님께 부탁해서 자기 사진을 1장씩 가지고 와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간 학부모님들께 부탁해서 이미 아이들의 사진을 온라인으로 받으신 분은 사진 명찰을 달아주셔도 되고요. 선생님도 자신과 아이들을 알리는 첫 소개를 멋진 비디오로 제작해서 교실 모니터로 보여주셔도 되지요.

## 02 생활하는 방식

아이들은 비록 어렵도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이해하면 자신의 몫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적응이라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교육의 큰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반을 행복한 반으로 만들기 위해 각자 해 볼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제안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책임감과 창의력을 가지고 자기 수준에서 현 상황을 책임지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자기 자리에서 개인용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선생님께서도 개인용 놀잇감(컬러링 북, 종이접기, 연결 큐브, 클레이, 유토 등)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 자신의 물건을 잘 챙기는 독립성이 늘어납니다. 내성적인 아이들은 등교와 동시에 갑작스럽게 단체활동으로 내몰리다가 지나치게 긴장하는 일이 없어지고, 그 대신 자기를 서서히 드러낼 수 있는 여유를 얻을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그 결과 따돌림을 예방하거나 현저히 없앨 수 있습니다.

## 03 공부하는 방식

30명인 한 학급을 3개 조로 나눠서 등교시키면 학급 인원수를 10명으로 줄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선생님은 개별 아동을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고, 훨씬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잘 병행된다면 아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고, 다양한 학습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 04 학부모와의 소통

온라인 개학 때문에 우리 반 밴드나 하이클래스로 원격수업, 생활 안내, 출석 확인을 하시느라 학부모님들과 접촉 빈도가 늘어나셨죠? 물론 수고스러우신 건 이루 말할 수도 없지만, 지금처럼 학부모님들과 가까워지신 적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 결과 부모님들은 선생님께 자녀의 특성과 기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고, 선생님의 의견이나 학급경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서 오해는 줄고 소통은 더 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먹구름 가장자리는 은빛으로 빛나고 뒷면에선 태양이 빛난다는 속담처럼, 어려운 시기에 만난 선생님과 아이들이 더 다정한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



FOCUS 01

김광일 명예기자(구미 형곡고 교사)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교생실습은 진행 중!



김광일 기자

“선생님들, 많이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5월 18일 구미 형곡고등학교 교직원 회의 시간,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했다. 교육실습을 위해 학교로 온 교생 선생님들이었다. 아직 앳되어 보이는 얼굴에 설렘이 가득해 보였다. 실습 기간은 줄어들었지만, 현장을 느끼고 배우고자 하는 새내기 교육자들의 열정은 오히려 더 커보였다.



권석란

보통 교육실습은 학교 현장에서 4주간 진행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2주간만 현장에서 실습이 진행되고, 나머지 2주는 소속 대학에서 현직 교사의 특강을 듣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른 학교는 여건에 따라 4주 실습, 3주 실습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개학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로 원격수업을 참관하고 운영을 보조하는 방식의 실습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를 시작으로 27일에는 2학년까지 등교하게 되면서 학생들과의 만남도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실습 마지막 날인 29일, 공개수업 평가회를 마치고 교생 선생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교육실습에 대해 물었다.



김민경(생물)

**기자** : 오늘 실습 마지막인데 소감이 어때요?

**김민경 선생님(생물)** : 원래 실습 마지막 날 다들 운다고 하더라고요. 교생선생님들, 지도 해주신 선생님들과도 정이 많이 들었는데…….



김민경(중국어)

**김설빈 선생님** : 저는 2주 동안 벌써 적응이 돼버려서 다음 주에도 계속 출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에요.



김설빈

**기자** : 학교가 체질하신 것 같네요?(웃음)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김민경 선생님(중국어)** : 애들이 등교한 첫날에 청소지도도를 했는데 한 친구에게 “넌 청소 구역이 어디야?”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학생들 얼굴을 모르다보니 잠시 후 그 친구에게 또 “청소 구역이 어디야?”라고 물은 거예요. “선생님 아까도 물으셨잖아요. 제 이름 모르세요?” 하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그 학생 이름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손민지

**최소현 선생님** : 학생들 등교 전까지 좀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조례, 종례를 했잖아요? 그런데 학교 마치고 길에서 만난 어떤 학생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화상으로 봤던 얼굴을 알아보고 인사를 한 것이었어요. 학생들을 화면으로만 접하다보니 소통이 잘되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들었는데 제 얼굴을 알아본 걸 보면 학생들이 수업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



최소현

다는 생각이 들어서 놀라웠어요.

**기자** : 이번 실습은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때와는 좀 달랐죠? 원래 알고 있던 실습과 어떻게 달랐어요?

**권석란 선생님** :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지만, 학생들을 3일밖에 못 봐서 너무 아쉬워요. 학생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 학교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

**김설빈 선생님** : 원래 교생실습 기간에 있는 체육대회, 스승의날 이런 행사들에 대해 많이 들었거든요. 같이 반티도 맞추고 달리기도 하는 것을 기대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워요.

**손민지 선생님** : 우리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체험한 편인 것 같아요. 중학교로 실습을 간 친구는 3주간 실습을 했는데 중학생들이 아직 등교를 안 해서 학생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공문서 작성하는 것, 평가 계획을 세우는 것 등을 주로 체험하고 배웠다고 들었어요.

**기자** : 우리 선생님들은 원격수업 준비를 주로 하며 대면수업도 경험하신 거죠?

**김민경 선생님(생물)** : 온라인 강의용 영상을 4차시 정도 제작했고 대면수업은 이틀간 4번 정도 했어요. 대면 수업으로 ABO식 혈액형에 대해 항원 항체 반응 관련 탐구를 활동지로 풀어가 는 수업을 했는데, 지도 선생님들이 수업마다 피드백을 해주셔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최소현 선생님** : 저는 오늘 공개수업을 했는데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됐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컴퓨터가 갑자기 안 됐고, 어제까지 했던 수업이 잘 안 되다보니 그전보다 조금 수업 준비도 덜 한 게 아닌가 자책도 되고.(눈물) 그런데 또 이게 학교고 수업인 것 같기도 하고…….

**김설빈 선생님** : 준비할 때는 잘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하다보면 말이 꼬이고 머리가 아해지기도 했어요. 알지오매쓰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래프의 점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되도록 코딩한 것을 보여

주려고 준비했는데 브라우저가 호환이 안 돼 못 보여줬어요. 그래도 학생들이 대답도 해주고 웃어도 주고 하니 아이들과 수업으로 소통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손민지 선생님** : 비대면 수업 준비할 때 영상 찍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촬영한 영상을 다시 보면 계속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촬영했다 지웠다를 반복하다보니 잠을 줄여가며 준비해도 시간이 모자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하브루타 같은 활동 수업을 해보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지만, 학생들과 함께하는 대면 수업은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 : 마지막으로 이번 실습으로 뭘 얻어 가는 것 같나요?

**권석란 선생님** : 학교 졸업생인데 학생으로 있을 때와 선생님이 되어서 느끼는 학교의 차이가 무척 컸어요. 학교의 실무가 어떤지는 현장에 와서 겪어봐야만 와 닿는 것 같아요.

**김민경 선생님(중국어)** :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노력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지도 선생님들이 선배 교사로서, 인생 선배로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할지 좋은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한성환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최소현 선생님** : 힘들기도 했지만 힘든 것보다 좋은 것들이 훨씬 많이 보였어요. 나는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하고 느꼈고, 꼭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설빈 선생님** : 저도 ‘내가 애들을 이렇게 좋아했었나?’ 싶고 진짜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공부할 때는 목표 의식이 없었는데, 실습 끝나고 나면 임용 시험공부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기자** : 다들 만족스러운 실습이었다니 기쁘네요. 무사히 실습 마친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FOCUS 02

세월은 흘러가도  
오월 정신은 언제나  
우리 곁에

이명주 명예기자

문태고등학교(교장 김승만)는 학내 역사통일 동아리 집현전 학생들이 40년 전 그 날을 생각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어린 마음을 담아 그 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518기억챌린지에 나섰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 학생들이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 챌린지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라 취해진 전남·광주지역 계엄군의 무력 진압과 관련,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광주시민과 학생들이 부당한 국가권력에 항거한 반독재 투쟁 운동을 말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폭압과 불의에 항거한 의로운 시민들의 항쟁으로서, 자유와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옹호하고 민주, 인권, 평화를 존중하려는 정신에 바탕을 두었다 하겠다.

문태고등학교 학생들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40주년을 추모하는 이미지를 게시하고, 오월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정성스레 담아 표현하고 공유하였다.

#518기억챌린지에 나선 문태고등학교 2학년 김은영 학생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여 당시 광주·전남 시민들을 기억하는 메시지를 SNS에 게시하고 여러 사람과 공유했다. 그때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군부독재에 대한 항거로 지금의 삶이 있는 것 같아 새삼 광주·전남 시민들이 더욱 대단히 느껴진다.”라며, “앞으로 5·18을 매년 기억할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제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해나가겠다.”라고 당차게 말했다.

안석규 명예기자

FOCUS 03

“학생 각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배달합니다”



경상북도 울진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농산물 소비와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하여 울진교육지원청·울진군청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공급 사업을 함께 추진하였다.

코로나19로 각급학교 등교 수업이 4차 연기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 각 가정에 지역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해 재배 농가의 고충을 해소하고 학교 급식의 안전한 먹거리를 가정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학생당 3만 원 상당의 꾸러미(생토미, 해방풍, 방울토마토, 자연산돌미역), 꾸러미(생토미, 해방풍, 건취나물, 방울토마토)로 구성되어 있는데 순수 울진군 지역생산 농산물이며, 울진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택배로 학생 가정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②

※ 행복한 교육 웹진(www.happyedu.moe.go.kr)에서 보다 다양한 기사를 확인하세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19년) 28.5% → (‘20년) 34% 목표  
→ (‘21년) 40% 목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  
(‘20.3.1. 총 3,801개원)  
  
‘유치원3법 개정’으로 유아 학습권 보호  
및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20년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으로 최대 31만원 지원)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온종일돌봄 수혜 아동  
  
‘19년 39.7만 명  
‘20년 42.5만 명(목표)

학비 부담 경감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고3 ‘19년 2학기    고2·3 ‘20년    고1·2·3 ‘21년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2.2% ‘19년    2% ‘20년 1학기    1.85% ‘20년 2학기

고등·평생 교육 혁신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추진  
(‘20년 3개 플랫폼 운영)

대학혁신지원사업 출범(‘19.3.)

- 자율개선대학(I 유형) 131개교
- 역량강화대학(II 유형) 12개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출범(‘19.3.)

- 자율개선대학(I 유형) 87개교
- 역량강화대학(II 유형) 10개교
- 후진학 선도전문대학(III 유형) 15개교

평생학습 활성화

K-MOOC    745개 ‘19년    900개 ‘20년  
  
매치업    24개 ‘19년    32개 ‘20년  
산업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과정

정부 3년간  
교육부  
핵심  
성과

교육이 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망 사다리 복원

대입 공정성 제고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21학년도 20.4%    ‘22학년도 21.9%  
수능위주전형 비율

고른기회 특별전형 선발규모 증가

46,327명 ‘20학년도    47,606명 ‘21학년도    53,546명 ‘22학년도

고졸 취업 활성화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제공  
(‘19학년도) 25천명 3백만 원  
→ (‘20학년도) 32천명 4백만 원  
  
공무원 고졸채용 확대  
‘17년 398명    ‘19년 527명  
  
공공기관 고졸채용 확대  
‘17년 1,830명    ‘19년 3,384명

초·중등 미래교육 혁신

코로나19 대응  
원격교육 전면 도입

초·중·고 단계적 온라인개학 실시

- 학생 참여율 평균 98.8%
- 공공플랫폼 이용자 약 400만 명

4.9.	4.16.	4.20.
중3, 고3	초4~6, 중·고 전체	초·중·고 전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옐로카펫 등 식별 용이성 시설 강화

모든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완료  
(‘20.3.)

진로 맞춤형 고교체제 전환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수립(‘19.11.)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 완료(‘20.2.)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20.3. 고1~)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  
(‘18년) 105개 → (‘19년) 354개 → (‘20년) 732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정(‘20년, 24개)